

양 취 경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Fashion Look 유형에 따른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권 태 순

**Fashion Look 유형에 따른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연구**

양 취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권 태 순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이미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모 이미지는 사람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여성정치인이 우리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여성 정치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인지하고 수용하고 파악하는지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가 어떤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권자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수용되며 나아가 유권자 집단이 선호하는 패션 룩(Fashion Look)유형과 이것이 어떻게 외모이미지가 좋은 여성정치인에게 투표를 통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유권자가 여성정치인을 실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연구 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은 여성정치인 외모이미지 수용 모델(PAAM: Politician Appearance Acceptance Model)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모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모 이미지의 요인을 설정하고 그 수용에 대해 성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지역별, 인구통계학적 견지에서 분석하였으며, 특히 패션 룩(Fashion Look) 유형 이미지에 따른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 및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방법으로 설문지에 의한 조사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피험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남녀를 연령, 학력, 거주지, 직업을 고려하여 편의 표집 하였으며, 총 응답자는 706명이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첫째로 피험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과 둘째 외모이미지

인지요소인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 네 부분에서의 피험자의 외모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셋째 패션 룩 유형의 4가지 이미지 요소인 로맨틱, 내추럴, 드라마틱, 클래식 스타일이 외모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넷째로 외모 이미지의 각 요인들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자질인 지도력, 청렴성, 결단력에 대한 선호도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투표결정시 외모이미지에 대한 정치인의 자질에 대한 고려정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설정했던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 등이 모두 외모이미지의 구성요소로써 의미 있게 나타났다. 네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색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 패션, 헤어스타일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주는 외적 이미지는 색에 의해 가장 크게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모이미지 구성요소로서 설정한 4가지 패션 룩 유형은 요인분석을 통해서 모두 의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클래식이었으며, 내추럴, 로맨틱, 드라마틱 순으로 외모이미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는 여성 정치인에게 과감하거나 혁신적인 면보다는 격식을 갖추는 여성 정치인 상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패션 룩 유형에 따른 외모이미지 수용태도를 성별, 직업별, 지역별, 연령별로 분석을 하였다. 여자에 있어서는 네 가지 모두에서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남자에 있어서는 내추럴한 패션 룩(Fashion Look) 유형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클래식한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이 선호되었으며, 개성이 강한

20대 유권자는 드라마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40대 유권자들은 로맨틱한 유형을 선호하는 점이 특이할 만 하였다.

셋째, 여성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여성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 중 지도력 선호도가 결단력이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청렴성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이는 청렴성이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 보다는 대부분의 여성 정치인이 남성 정치인에 비해서 청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도력과 결단력 또한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외에 다른 자질의 선호도가 영향이 많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적극적인 유권자일수록 여성 정치인에게 고유한 외모이미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넷째, 유권자들의 이미지 선호도가 높은 여성 정치인은 박근혜 의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강금실 전 장관, 추미애 의원, 박영선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의원은 40대와 50대에서 외모 이미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클래식, 내추럴, 로맨틱 이미지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여성 정치인 박근혜의 외모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강금실 전 장관은 20대와 30대의 연령대에서 선호도 높았으며,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이 강금실 전 장관의 외모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여성 정치인 추미애는 20대의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에서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내추럴한 패션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여성 정치인 박영선은 30대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특별한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의 선호도에 따른 지지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가 유권자의 투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외모이미지가 투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모이미지 수용태도 중에서 여성 정치인이 외모이미지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일수록 외모이미지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연령과 최종학력을 통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 40대와 50대 유권자들과 최종학력이 비교적 낮은 유권자일수록 외모이미지가 좋은 여성정치인에 대한 선호정도가 높았다. 반대로 나이가 젊고 고학력자일수록 외모이미지보다는 정치인의 자질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투표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 중에서 청렴성 보다는 지도력과 결단력의 선호도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비추어 보면 여성 정치인은 부드러움보다는 결단력, 지도력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여성 정치인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투표하는 일련의 행위는 외모이미지와 정치인의 자질에 의해 이루어진 종합된 이미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모수용태도와 정치인의 자질은 모두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와 투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인의 자질과 더불어 외모 이미지의 관리가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외적 이미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런 노력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의한 접근을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그런 과학적인 접근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의의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II. 패션 룩 유형에 따른 외모 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1. 외모 이미지	10
2. 외모 이미지 유형에 따른 패션 룩 유형	12
1) 외모 유형에 따른 패션 연구	12
2)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 연구	15
3. 패션 룩 유형에 따른 이미지 연구	25
1) 클래식 이미지	26
2) 내추럴 이미지	33
3) 로맨틱 이미지	40
4) 드라마틱 이미지	47
4.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55
1) 정치인의 이미지 구성요소	55
2) 국내 정치인의 이미지	62

III.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와 유권자 수용태도에 대한 고찰 ...	68
1. 국내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68
1) 국내 여성 정치인의 현황	70
2) 국내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유형 분석	72
2. 유권자의 수용 모델과 투표분석 모델	75
1) 외모 이미지 수용 모델	75
2) 유권자 투표행동 분석 모델	80
IV. 패션 특 유형에 따른 여성정치인 외모이미지 연구	86
1. 연구 모델 및 연구문제 설정	86
1)PAAM 모델	86
2)연구문제	87
2. 조사표본의 특징	89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	92
4. 변수별 특성 및 기초통계량	99
5. 결과 및 논의	110
1)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	110
2) 분석결과의 시사점	131
V. 결론 및 제언	134
1. 연구 결과의 요약	134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38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색채 배색의 종류와 효과	19
<표 2> 9가지 이미지 존	24
<표 3> 패션 룩 유형에 따른 클래식 이미지 표현방법	29
<표 4> 패션 룩 유형에 따른 내추럴 이미지 표현방법	37
<표 5> 패션 룩 유형에 따른 로맨틱 이미지 표현방법	43
<표 6> 패션 룩 유형에 따른 드라마틱 이미지 표현방법	50
<표 7> 정치 후보자의 이미지 구성요소	59
<표 8> 한 후보자의 이미지 구성도	62
<표 9> 국내 정치 후보자의 이미지 구성요소	64
<표 10> 제 16대 대선 후보자 이미지	64
<표 11> 역대 여성 국회의원	71
<표 12> 2004년 여성 정치인의 현황	72
<표 13> 국내 여성 정치인의 패션 룩 유형 분석	74
<표 14>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90
<표 15>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자)	91
<표 16> 인구통계학적 특성 (여자)	92
<표 17> 설문 항목 요약	95
<표 18> 여성 정치인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의 요인 분석	97
<표 19>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외모 이미지의 설문 문항 응답치의 평균	100
<표 20>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외모 이미지의 평균	101
<표 21>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패션 룩 유형의 평균	101
<표 22> 패션 룩 유형 선호도의 평균 차 검정	102
<표 23>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의 평균	104
<표 24>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와 고유한 외모 이미지 선호도의 평균	105
<표 25> 여성정치인 선호도	106
<표 26> 투표결정에 대한 기초 통계량	108

<표 27> 외모이미지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111
<표 28>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소유에 미치는 영향	112
<표 29> 패션 룩 유형이 외모 이미지에 의한 정치적 위상상승에 미치는 영향	113
<표 30>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113
<표 31>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114
<표 32>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남성	115
<표 33>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여성	116
<표 34>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20대	117
<표 35>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30대	117
<표 36>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40대	118
<표 37>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120
<표 38> 박근혜의 외모이미지에 대한 연령별 선호경향	122
<표 39> 박근혜의 외모이미지 선호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122
<표 40> 강금실의 외모이미지에 대한 연령별 선호 경향	123
<표 41> 강금실의 외모이미지 선호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124
<표 42> 추미애의 외모이미지에 대한 연령별 선호경향	124
<표 43> 추미애의 외모이미지 선호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125
<표 44> 박영선의 외모이미지에 대한 연령별 선호 경향	125
<표 45> 박영선의 외모이미지 선호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126
<표 46>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외모기준 투표결정에 대한 상관관계	127
<표 47>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가 유권자의 정치인의 자질 기준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	128
<표 48> 외모 이미지 수용태도와 고유외모이미지 선호도,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 가 유권자의 외모기준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	129
<표 49> 연령별 투표결정	131
<표 50> 학력별 투표결정	131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도식도	6
<그림 2> 4 가지 이미지 존	23
<그림 3> 클래식 이미지 맵	28
<그림 4> 클래식 패션 Celine 2006 SS	30
<그림 5> 클래식 패션 Chanel 2005 SS	30
<그림 6> 클래식 패션 Eley Kishimoto 2006 SS	30
<그림 7> 클래식 패션 Fendi 2006 SS	30
<그림 8> 클래식 패션 Ralph Lauren 2004 FW	30
<그림 9> 클래식 패션 Scherrer 2005 SS	30
<그림 10> 클래식 패션 Valentino 2005 SS	31
<그림 11> 클래식 패션 Ralph Lauren 2005 SS	31
<그림 12> 클래식 메이크업 헤어 Chanel 2005 SS	31
<그림 13> 클래식 메이크업 헤어 Marni 2006 SS	31
<그림 14> 클래식 메이크업 헤어 Ralph Lauren 2005 FW	31
<그림 15> 클래식 메이크업 헤어 Chanel 2005 SS	31
<그림 16> 클래식 메이크업 Chanel 2005 SS	32
<그림 17> 클래식 메이크업 헤어 Ralph Lauren 2005 FW	32
<그림 18> 클래식 메이크업 헤어 Valention 2005 SS	32
<그림 19> 클래식 메이크업 Tuleh 2005 F/W	32
<그림 20> 내추럴 이미지	36
<그림 21> 내추럴 패션 Anna Sui 2006 SS	38
<그림 22> 내추럴 패션 Betty Jacson 2006 SS	38
<그림 23> 내추럴 패션 Burberry Prorsom 2006 SS	38
<그림 24> 내추럴 패션 Clements Riberio 2006 SS	38
<그림 25> 내추럴 패션 Wakeley 2006 SS	38
<그림 26> 내추럴 패션 Bill Blass 2006 SS	38
<그림 27> 내추럴 메이크업 헤어 Prada 2006 SS	39
<그림 28> 내추럴 메이크업 헤어 BCBG 2006 SS	39
<그림 29> 내추럴 메이크업 헤어 Marni 2006 SS	39
<그림 30> 내추럴 메이크업 헤어 Marni 2006 SS	39
<그림 31> 내추럴 메이크업 Elie Saab 2005 SS	39

<그림 32> 내추럴 메이크업 헤어 Teret Bantine 2006 SS	39
<그림 33> 로맨틱 이미지 맵	42
<그림 34> 로맨틱 패션 Andrew GN 2006 SS	44
<그림 35> 로맨틱 패션 Balenciaga 2006 SS	44
<그림 36> 로맨틱 패션 Basso & Brooke 2006 SS	44
<그림 37> 로맨틱 패션 Cacharel 2006 SS	44
<그림 38> 로맨틱 패션 Carolina Herrera 2006 SS	44
<그림 39> 로맨틱 패션 Elspeth Gibson 2006 SS	44
<그림 40> 로맨틱 패션 D&G 2006 SS	45
<그림 41> 로맨틱 패션 Doir 2005 FW	45
<그림 42> 로맨틱 패션 Elie Saab 2005 SS	45
<그림 43> 로맨틱 패션 Nagazawa 2006 SS	45
<그림 44> 로맨틱 패션 Blumarine 2006 SS	45
<그림 45> 로맨틱 패션 Fendi 2006 SS	45
<그림 46> 로맨틱 메이크업 Basso&Brooke 2006 SS	46
<그림 47> 로맨틱 메이크업 헤어 Betsy Johnson 2006 SS	46
<그림 48> 로맨틱 메이크업 헤어 Missoni 2006 SS	46
<그림 49> 로맨틱 메이크업 헤어 Robertocavalli 2006 SS	46
<그림 50> 로맨틱 메이크업 헤어 Dior 2005 FW	46
<그림 51> 로맨틱 메이크업 헤어 Zac Posen 2006 SS	46
<그림 52> 드라마틱 이미지 맵	49
<그림 53> 드라마틱 패션 Allyson Jacobs 2006 SS	51
<그림 54> 드라마틱 패션 Betty Jackson 2006 SS	51
<그림 55> 드라마틱 패션 Mason By Michelle Mason 2005 FW	51
<그림 56> 드라마틱 패션 Carolina Herrera 2006 SS	51
<그림 57> 드라마틱 패션 Eley Kishimoto 2006 SS	51
<그림 58> 드라마틱 패션 Manish Arora 2006 SS	51
<그림 59> 드라마틱 패션 Bernhard Willhelm 2006 SS	52
<그림 60> 드라마틱 패션 Louis Vuitton 2006 SS	52
<그림 61> 드라마틱 패션 Luella Bartly 2006 SS	52
<그림 62> 드라마틱 패션 Giles 2006 SS	52
<그림 63> 드라마틱 패션 Gucci 2006 SS	52
<그림 64> 드라마틱 패션 Lrakli Nasidze 2005 SS	52
<그림 65> 드라마틱 메이크업 On Aura Tout Vu 2005 SS	53

<그림 66> 드라마틱 메이크업 Dior 2005 SS	53
<그림 67> 드라마틱 메이크업 헤어 Dior 2005 SS	53
<그림 68> 드라마틱 메이크업 Dior 2005 SS	53
<그림 69> 드라마틱 메이크업 헤어 Felipe Oliveria Baptista 2005 SS	53
<그림 70> 드라마틱 메이크업 헤어 Georges Hobeika 2005 SS	53
<그림 71> 드라마틱 메이크업 Jean Paul Gaultier 2005 SS	54
<그림 72> 드라마틱 메이크업 Khaled 2005 SS	54
<그림 73> 드라마틱 메이크업 Laurent Mercier 2005 SS	54
<그림 74> 드라마틱 메이크업 헤어 Allyson Jacobs 2006 SS	54
<그림 75> 드라마틱 메이크업 Khaled 2005 SS	54
<그림 76> 드라마틱 메이크업 헤어 Manish Arora 2006 SS	54
<그림 77> 합리적 행위이론 (TRA : Theory of Reasoned Action)	76
<그림 78> 계획적 행위이론 (TPB : Theory of Planned Behavior)	78
<그림 79> 기술수용모형 (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	79
<그림 80> 유권자 행동 분석 모델	80
<그림 81> Sheth와 Newman의 모델	82
<그림 82> Lindon 모델	83
<그림 83> Campbell의 모델	84
<그림 84> Page와 Jones의 모델	85
<그림 85> 여성 정치인 외모 이미지 수용 연구 모델	86
<그림 86> 여성 정치인 선호도	107
<그림 87> 정치인의 자질 기준 모델검증	128
<그림 88> 외모기준 모델검증	129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오늘날은 첫 인상의 느낌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이 되는 스피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흔히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으로 행동이 결정된다고 여기지만, 실제 우리 인간은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일이 많다. 즉, 자신의 얼굴, 헤어스타일, 복장 등 남에게 보여 지는 외모를 잘 연출하는 이른바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좋은 이미지는 어떤 한 부분에만 치중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한 부분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조화롭게 받쳐 주어야만 좋은 부분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외모와 자신의 직위 또는 상황에 어울리는 몸가짐, 매너, 말솜씨 모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훌륭한 이미지가 연출된다.

우리의 외모는 사회생활의 상호 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신체적 외모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는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 라고 하지만 사회적 기준이 존재함을 뜻한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며, 더 현명하고 더 사교적 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만족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도 가지게 된다.¹⁾

1) T. Cash, & T. Pruzinsky., (1990), The psychology of physical appearance: Aesthetics, attributes, and images,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Y: The Guilford press, pp.51-79.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외모로 대표되는 외적 이미지와 성품으로 대표되는 내적 이미지로 나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을 타인이 기억하도록 보여 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외적 이미지라고 한다면, 내적 이미지는 외적으로 시각적, 청각적으로 직접 자극을 주고받는 것을 내적 이미지라 하고 영어로는 'mental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반면 동양에서는 낭중지추(囊中之錐)²⁾란 고사 성어 에도 나와 있듯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뛰어난을 남이 알아준다.' 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런 내적이미지는 과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외적 이미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생명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케네디의 미소 어린 표정이 무거운 표정의 닉슨을 압도한 것을 시발로, 노태우의 보통사람 이미지, 김대중의 핑크, 블루 셔츠를 통한 젊은 이미지로의 표현 등을 이용하여 많은 성공을 거둔 것을 보았을 때, 정치인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고, 정치 과정에서도 그 이미지는 그의 정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으로 본 국내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있어 어떻게 수용 태도에 영향이 미치며, 이러한 외모 이미지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와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백과사전에는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는 뜻. 원래 주머니 속에 넣은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그 끝이 주머니를 뚫고 비어져 나온다는 뜻이다. 《사기(史記)》 〈평원군전(平原君傳)〉에 "평원군이 말하기를 모름지기 현사(賢士)가 세상에 처함에는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과 같아 곧 그 인격이 알려지게 된다."고 말한다.

2. 연구의 목적

21세기는 영상과 테크놀로지의 시대라고들 하며 이 둘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테크놀로지를 통한 영상의 발전은 우리의 사회, 문화, 정치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일반인들에게 타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정보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행동, 말, 얼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즉 그 사람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지에 대한 접근은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하다. 즉 한 개인의 이미지, 회사의 이미지, 도시의 이미지, 국가의 이미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부분이 각기 다르며 이미지를 추구하는 목적 또한 다양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서 제시한 여성정치인의 4가지 외모이미지(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에 대한 선호가 여성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려 하였다. 4가지 외모이미지 중 어떤 이미지가 유권자의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서 여성정치인이 고유한 외모이미지를 가져야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호의적인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둘째 유권자 정치인 외모 이미지 수용 모델(PAAM: Politician Appearance Acceptance Model)에 기초하여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반인으로서의 개념의 구분이 쉽지 않은 클래식, 내추럴, 로맨틱, 드라마틱한 이미지 대신에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에 대한 시각적인 예를 제시하여 응답자 각자의 의식 속에 잠재해있는 패션 룩 유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추출된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을 바탕으로 여성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즉 어떤 패션 룩 유형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여성정치인이 고유한 외모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리고 좀 더 다각적 분석을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구분을 이용하여 응답자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어떤 상이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파악하여 하였다.

넷째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세 가지 정치적 자질(지도력, 청렴성, 결단력)이 고유한 외모이미지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했다.

다섯째 외모이미지 수용태도, 고유한 외모이미지에 대한 선호도, 정치적 자질 선호의 요인이 유권자들이 외모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결정이나 정치적 자질을 기준으로 한 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이상의 연구 목적은 유권자 정치인 외모 이미지 수용 모델 (PAAM : Politician Appearance Acceptance Model)에 기초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모델이 적용가능한 지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전체적으로 실제 국내 여성정치인들이 추구해 온 패션 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문응답결과 이들을 지지했던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패션 룩 유형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서 여성정치인의 가진 외모이미지가 지니는 실제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정치인 외모에 관해 유권자가 실제로 만족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분석하고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 기존의 외모수용에 관한 제반연구들을 살펴보았으

며 또한 정치인의 인식 및 수용에 관한 관련 모형들을 고찰해 보았다.

미국의 유명한 의상 컨설턴트인 Dawn E. Waldrop은 사람들의 패션 룩(Fashion Look) 유형을 내추럴 이미지, 클래식한 이미지, 엘레강스한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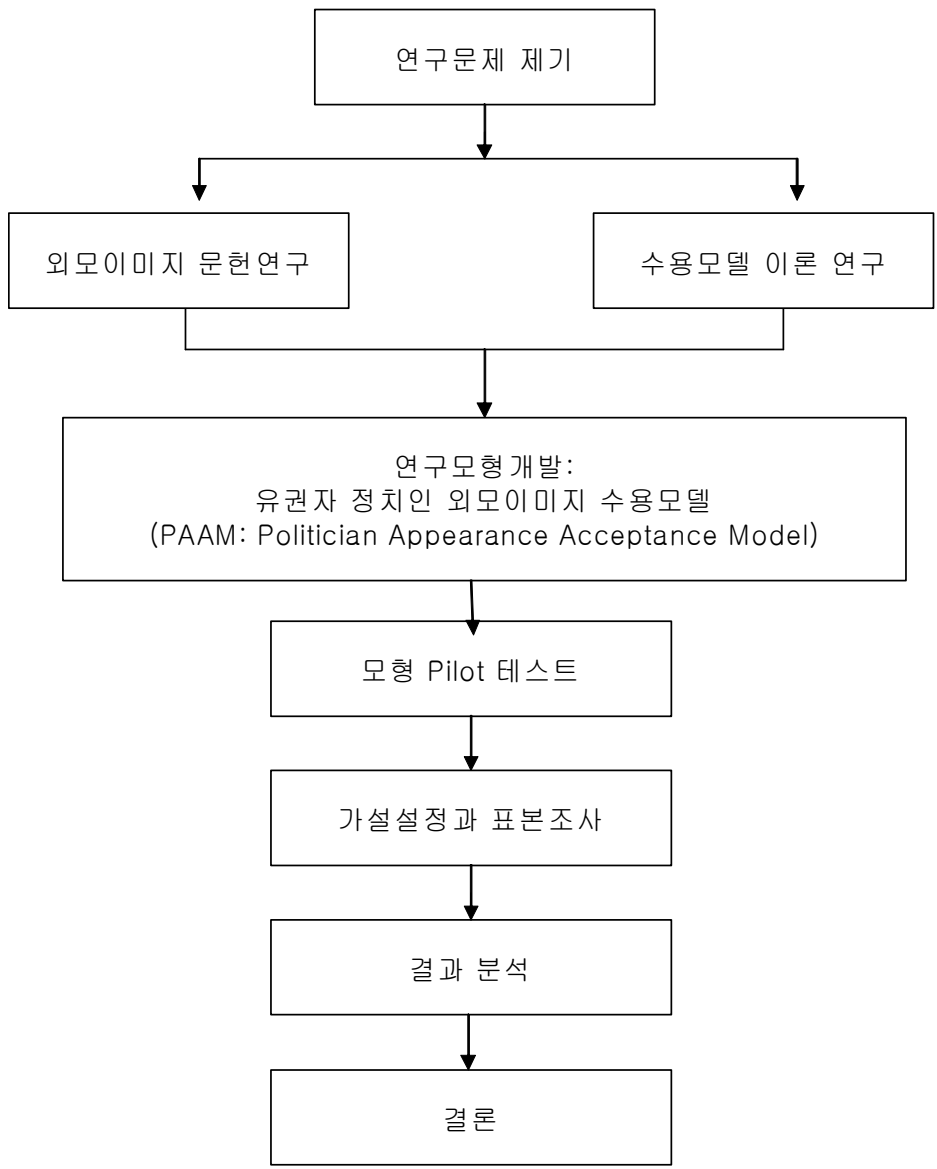
우선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 외모 이미지에 관한 문헌을 조사 하였고, 외모수용 모델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 하였다.

유권자 정치인 외모이미지 수용 모델(PAAM: Politician Appearance Acceptance Model)을 개발 하였고, 본 모형의 검증을 위해 실증적인 연구 방법으로 전문가 집단의 면담을 통해 조사표를 설계 하였으며, 연구 문제를 설정 하고, 표본조사를 통해 위 모델을 입증하였다.

설문 구성은 외모이미지 인지요소인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 네 부분으로 구성하여 여성정치인의 외모이미지로서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그 다음은 여성정치인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관한 설문으로 여성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소유, 외모이미지와 정치적 위상의 관계, 외모이미지 수용성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선호도로 요구되는 것에 대한 항목으로 지도력, 청렴성, 결단력을 제시하였고, 여성정치인의 고유한 외모이미지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응답자가 2명이상의 외모이미지가 좋은 여성정치인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외모이미지나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가 좋은 여성정치인에게 투표하는가에 대한 투표결정에 관한 질문으로 본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검정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및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11.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 패키지 분석 방법은 요인분석, 회귀분석, 로지스틱분석, 상관분석 등의 방법을 연구가설에 맞추어 적용 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아래의 연구모형 도식도 <그림 1>로 나타내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도식도

II. 패션 룩 유형에 따른 외모 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외모 이미지

현대인은 이미지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기억하고 있는 것, 혹은 눈앞에 없을 경우 생각해서 기억해 내는 등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미지(image)란 원래 라틴어의 imago에서 유래된 것으로, ‘모방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imitari와 관련된 것이다.³⁾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 대상의 외적 형태에 대한 인위적인 모방이나 재현’을 뜻한다.

이미지는 1950년부터 주로 심리학에서 다루어져 오던 용어 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미지는 마케팅 분야에서 기업의 이미지, 제품 이미지, 광고 이미지 등과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 마케팅 분야에서도 후보자의 주요한 연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스틴(Daniel Boorstin)은 이미지를 가관념(pseudo ideals)이라고 정의 하면서,⁴⁾ 이미지가 특정사건에 대한 진실 된 측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조작되고 단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의 세계와 관련된 허구적 사건을 가사건(pseudo events)이라 하고, 가식의 세계와 관련된 허구적 관념을 가관념이라고 정의하면, 이러한 가관념이 바로 이미지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이미지의 속성을 첫째, 인위적(synthetic)이고, 둘째, 믿을 수 있는(believable)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동적(passive)이고, 넷째, 두드러진(vivid) 것이며, 다섯째, 단순화(simplified)되면서도, 여섯째, 모호한(ambiguous)것으로 기술 하였다.

3) J. Boorstin, Daniel, (1961), *The Image*, N.Y.: Athbaum, p.167.

4) J. Boorstin, Daniel, (1961), op, cit. p,185.

한(Dan F. Hahn)과 건처(Ruth N Goncher)는 후보자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그의 개성과 세계관이 우리의 그것들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결정된다”고 지적했다.⁵⁾ 또한 님모(Dan D. Nimmo)와 새비지(Roder L. Savage)는 이미지를 “사물이나 사건, 또는 인물에 관해 지각된 일련의 속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성개념”이라고 정의했으며,⁶⁾ 바우즈(Hohn E. Bowes)와 스트렌츠(Herbert Strentz)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공중에 의해 지각된 대상인물의 속성”이라고 규정했다.⁷⁾

결국 이미지란 개인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 개념, 인상의 총합을 의미한다.⁸⁾ 또한 이미지는 특정대상의 외적 형태에 대한 인위적인 모방이나 재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총체적인 영상의 결합체로 설명되는 이미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결정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어떤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총체적인 영상의 결합체로 설명된다.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신념이나 감정, 후보자의 정치적 경력, 역할, 자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는 다양한 영상을 통한 총체적 이미지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⁹⁾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정치인들인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해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UCLA의 Albert Mehraion 교수는 “언어나 비언어

5) S. A. Hellweg, (1995), Campaigns and candidate images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In K. L. Hacker., (Ed.), Candidate images in presidential elections, pp.1-17. Westport: Praeger. pp,57-65, 61.

6) D. Nimmo., & R. L. Savage., (1976), Candidate and their images: Concepts, methods, and findings. CA: Goodyear. p.8.

7) J. E. Bowes., H. Strentz., (1978), Candidate images, Stereotyping and the 1976 debates. In B. D. Ruben., (Ed), Communication Yearbook 2. pp 391-406.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8) 박병준, (1991), 정치 마케팅 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서울:나남출판사), p.173.

9) K. Boulding., (1956), *The image* (Ann Arbor: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 5-18.

적인 요소들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첫째 시각적인 요소가 55%를 차지하는데 말하는 사람의 얼굴표정,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옷차림, 눈 맞춤, 자세, 제스처, 걸음걸이 등이 전달되어서 이미지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둘째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어조 볼륨 등의 청각적인 요소가 38%를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 그 자체인 언어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개인의 이미지 형성 즉 정치인에게 있어서 시각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윤무는 이미지가 실제 선거에서 긍정적인 작용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들은 대중매체의 영상에 의해 가치판단을 하게 되므로 진정한 후보자의 본질을 왜곡 인식하는 오판을 범할 수 있는데, '홍행사'가 대중의 지지 또는 존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표현하면서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시각은 크게 이슈 중심적 결정요인과 이미지 중심적 결정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슈 중심적 결정요인을 중시하는 시각에 의하면, 투표자들은 정책과 쟁점, 이슈를 준거로 하여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미지 중심적 결정요인을 중시하면, 이미지는 주로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다시 말해 후보자의 성격, 능력, 경험, 배경, 정직성, 도덕성, 외모 등의 특성이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Hahn and Gonchar등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는 40% 이상의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인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으로 불리는 이미지의 상기와 이슈의 상기를 비교해 볼 때, 응답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체를 통해 후보자의 이미지에 대한 기사를 훨씬 더 많이 상기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 후보자들의 토론

10) D. F. Hahn., & R. M. Gonchar., (1972), Political myth: The image and the issue Today's Speech, 20(3), pp. 57-65.

직후 이미지 상기율은 이슈 상기율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한다.¹¹⁾

이런 맥락에서 Atkinson은 현대정치에서 정당 지도자는 숙달된 응변가로서 뿐만 아니라 TV에 출현하게 되면 연기자로서 좋은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¹²⁾ 외모가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일례로 1960년의 미국 대통령선거를 볼 때, 유권자들은 TV에서 후보의 발언내용은 별로 기억하지 않았다. 보통 TV의 시청자가 발언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비율은 7%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복장에 대해 45%, 인물의 겉보기와 분위기에 대해 48% 정도라고 한다.¹³⁾

이미지 메이킹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리한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것이 있다.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청산하고 유리한 이미지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여 대중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다. 둘째로, 기존의 이미지를 강화,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대중들이 갖고 있는 후보자의 희미한 이미지를 강화시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이미지를 확대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다. 좋은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낡은 이미지는 새로운 매력으로 부각시켜 이미지를 신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넷째는, 이미지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다. 대중들에 한번 심어준 이미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강한 인상을 남기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여 각인된 하나의 이미지는 그 후보자만의 강한 이미지로 남게 된다.

이미지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시사해주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Nimmo & Savage는

11) 이현출, (1994), 대중매체와 선거, 서울: 신유, p.48.

12) M. Atkinson, (1984), *Our masters' voice : The language and the body language of politics*, London: Methuen. pp.177-178.

13) 정윤무, (1995), 미디어 정치론, 서울: 정우당. p.239.

이미지를 “사건이나 사건, 또는 인물에 관해 지각된 일련의 속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성 개념” 이라고 정의했으며,¹⁴⁾ Gruing은 이미지가 메시지, 명성, 지각, 인지, 태도, 신뢰성, 신념, 커뮤니케이션, 관계 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였다.¹⁵⁾

Boorstin은 이미지를 특정 대상의 외적 형태에 대한 인위적인 모방이나 재현을 뜻한다고 말한다.¹⁶⁾ 그는 이미지를 의사 관념(pseudo-ideals) 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이미지는 특정 사건에 대한 참되고 진실 된 면을 보여 준다고 하기 보다는 조작되고 단편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의 세계에 관련된 허구적인 사건을 유사사건 이라고 하면서 가치의 허구적인 개념을 유사 관념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러한 관념을 ‘이미지’ 라고 하였다.

이미지란 다른 사람의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실체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이미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각자의 느낌이고 단숨에 형성되기도 하지만, 모자이크처럼 부분들이 모여 전체를 이루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각 개인의 개성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상대를 통해 느끼는 이미지는 얼굴 표정, 제스처, 음성, 말의 내용, 말투, 어조나 강세, 자세나 태도, 의상, 주변 환경 등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의 사고, 취향에 따라 편집되어 만들어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의 덩어리, 특유한 감정, 고유한 느낌, 이것이 바로 개인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가 바로 한 개인의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인상, 신념 등의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정치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는 선거

14) 정상대, (2000), 한국 대통령 선거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제 13,14,15대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전략 비교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32.

15) J. R. Grunig, (1993), *Image and substance: Form symbolic to behavioral relationships*. Public Relations Review, 19(2), pp.121-139.

16) J. Boorstin (1961), op.cit. p.277.

전반을 통틀어 유권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하느냐는 것으로 그 어느 것보다도 선거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Bowes & Strentz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후보자의 이미지를 공중에 의하여 지각된 대상 인물의 속성” 이라고 정의하였다.¹⁷⁾

2. 외모 이미지 유형에 따른 패션 룩 유형

인상 형성의 요소로는 얼굴 모습, 머리카락, 눈동자, 피부의 색상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데,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의복, 액세서리 등과 조화되어 전체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얼굴은 의복과 함께 인상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현대의 도시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첫 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현대인들은 그들의 인상을 좋게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무엇으로 인하여 신뢰를 갖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중 시각적 메시지가 55%, 음성 메시지가 38%, 언어 메시지(사용하는 어휘, 단어, 말 등)가 7%였다.

미국 UCLA의 Albert Mehraion 교수는 의사소통에서 시각적 요소가 5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지 메이킹 요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에는 말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옷차림, 눈 맞춤, 자세, 제스처, 걸음걸이 등이 인식되어서 이미지로 인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¹⁸⁾

17) 정상대, (2000), 앞의 글, p.39.

18) 이동희, 윤병국 공저, (2003),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 서울: 형설출판사, pp.307~308.

1) 외모 유형에 따른 패션 연구

외모에 대한 국 내외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은 주로 신체 모습이나 인상에 대하여 다루어져 왔다. 얼굴, 체형, 체중, 신체 사이즈, 신체 만족과 불만족, 첫 인상, 매력, 인상 형성, 대인 지각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이다.¹⁹⁾

국내의 경우 외모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보다는 신체 이미지나 체중과 관련된 신체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모 가꾸기 측면인 화장, 헤어스타일, 성형 수술, 의복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²⁰⁾

Kasier는 “외모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 표정, 자세도 중요하다. 가장 직접적으로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체와 의복이다”라고 하였다.²¹⁾

행동 과학자들은 외모를 신체적 매력, 몸무게, 키, 얼굴의 특징, 가꾸는 요소 등과 같은 신체 외모의 변수들로 세분하여 인지하려고 하며, 이 세분된 변수들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태도와 속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²²⁾

김희숙은 외모가 문화적 범주의 구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매개물이며, 외모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화장, 헤어스타일, 복식이라고 하였다.²³⁾

19) Bull & Rumsey,(1988), C. H. Hasen,& R. D. Hasen, (1998), Finding in the Crowd : An Anger Superiority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pp.917-927. 문남원 & 김옥진(1997), 얼굴 유형과 의복 네크라인과의 조화 연구, 복식 35, pp.305-323.

20) 김경순, 김미애, 박상희, 오인영, (2000), Make up II, 청구 문화사, p.55.

21) S. B. Kaiser,(1998),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New York. pp.145-157.

22) T. Cash., & T. Pruzinsky., (1990),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 The Guilford press, p.41.

Hillestad은 사람의 신체를 몸의 형태, 몸의 표현, 몸의 움직임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이 신체에 의복은 매개체라고 하였다. 사람의 신체 외모는 화장품이나 옷, 악세사리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²⁴⁾ 또한 신체에 행해지는 화장이나 헤어스타일도 의복과 함께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하여 왔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의복 착용 행동은 자기표현임과 동시에 자신의 인상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²⁵⁾ 패션과 표정 관리는 인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⁶⁾

첫 인상을 결정짓는데 패션은 중요한 단서(cue)가 되기 때문에 친구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갖기 위한 면접을 할 때, 미팅이나 데이트를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패션은 사회적 신분, 직업, 성격, 흥미, 태도, 가치관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는 단서 제공이 된다고 하였다.²⁷⁾

Cooly는 자신의 얼굴, 몸매, 옷을 거울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일부이므로 관심을 가지며,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즐겁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다.²⁸⁾ Kasier은 사람들이 사회적 반응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외모가 좋아 보이고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사례들을 모아 제시하고 있다.²⁹⁾

Cox와 Glick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을 위한 면접 시 옷차림이 면접자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 약간의 남성적인 옷차림이 여성적이거나 극도의 남성적인 옷차림보

23) 김희숙, (2000),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p.9.

24) R. Hillestad,(1980), *The underlying structure of appearance. Dress 5:* pp.117-125.

25) M. R.Solomon, (1985),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p.256.

26) J. T.Molly, (1975), *Dress for success.* New York: Warner ; Molly, J. T., (1977). *The women's dress for success.* New York: Warner. p.56.

27)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2001), *의상심리*, 교문사. p.35.

28) 김영수,(2000), *정치인 이미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7, 재인용.

29) Kasier, (1998), *op.cit.* p.122.

다 좀 더 전문적인 직장인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수적인 재킷은 예술적 감각을 요구하는 일자리의 면접 시에는 덜 적합한 옷차림일 것이다.

2)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 연구

메이크업은 어원으로 보면 화장품과 동의어로, 그리스어 cosmetics로 ‘잘 정리한다.’, ‘잘 감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코스메티코스는 무질서, 혼돈의 의미인 카오스의 반대개념으로, 코스모스(cosmos)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의미를 ‘질서 있는 체계’, ‘조화’를 뜻한다.

메이크업이란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고 자기 자신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한층 더 자신의 매력을 높여주는 행위라 정의한다.³⁰⁾ 과거에는 결점을 커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현재에는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장점으로 살리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본래의 피부보다 메이크업을 잘 하였을 경우 제2의 피부로 탄생된다. 메이크업이 잘된 피부는 노 메이크업 보다 훨씬 외부 환경의 공해로부터 피부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얼굴의 복장이다.

신체에 직접 행해지는 메이크업은 의복과 함께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간 생활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여 점차 장식적 의미가 부여되고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다. 현대에 와서 화장품 관련 기술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메이크업은 일반에게도 널리 보편화 되어 의복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액세서리와 함께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시 되는 토탈 패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자신의 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메이크업 하는 것에 대하여 서양문물을 전파하는 대중 매체의 성장과 보급으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 때 이미 새도우, 파운데이

30) 강경화, (1999), 메이크업 총론, APC, p.58.

선, 매니큐어, 마스크라 등이 나타났다. 1988년 올림픽 이후, 급속한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개인의 여가 생활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스포츠, 레저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건강관리용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화장은 개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표현 수단이며, 자신만의 매력과 장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화장을 한다.³¹⁾ 자기표현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장품의 사용은 대인 관계에서의 인상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보통 수준의 외모를 가진 여성이 화장을 안 했을 때와 전문적인 화장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각되는지에 관한 실험 결과, 화장을 한 외모가 더 매력적이고, 더 여성적이며, 더 섹시하게 지각되고 있음을 발견했다.³²⁾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이 화장을 했을 경우와 화장을 지운 경우를 구분하여 외모의 매력 정도와 호감 정도를 평가하게 된 결과, 대체로 화장을 한 경우 대하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³³⁾

메이크업을 접하는 연령층도 과거보다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20대 젊은 층과 중년 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³⁴⁾

메이크업을 개개인의 얼굴 기에 가장 잘 맞는 색(color), 질감(texture), 형(shape)의 세 디자인 요소를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메이크업의 분류로 현대 메이크업의 개념을 체계화 한 슈에므라(Shu-uemura)의

31) 김경순, 김미애, 박상희, 오인영.,(2000), *Make up II*, Caung-gu Publishing Co. p.101.

32) J. A. Graham.,& A. J. Journal., (1981), *The effect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Psychology*, 54, pp.917-924.

33) C. L .Cox., & W. H. Glick., (1986), Resume evaluations and cosmetics use: when more is not brtter. *Sex Role*, 14, pp.51-58.

34) 조규화, (1999), 서울시내 여중고생의 화장품 소비실태 조사연구, 태평양장학문화 재단, 제 10집(여성생활문화편), pp.45-47.

예에 의하면 뷰티 메이크업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메이크업을 토대로 남성과 여성의 경우로 나뉘어 진다.

가. 기초(basic) 메이크업 :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의미는 피부 표현 메이크업으로 모든 메이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단계이며, 두 번째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부위에 주력하지 않는 화장을 의미한다.

나. 스트리트(street) 메이크업 :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일상생활의 메이크업으로, 낮에는 자연스럽게 밤에는 낮보다 인공조명에 따라 터치를 강하게 할 수 있다.

다. 패션(fashion) 메이크업 : 그 해에 유행하는 색이나 모드를 강하게 나타내는 메시지적 요소를 띄는 메이크업 이다. 주로 화장품 회사의 메이크업 프로모션 화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아트(art) 메이크업 :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의도에 따라 테마를 정해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토털 메이크업으로, 환상적인 것, 동물적인 것, 공포적인 것 등이 있으며, 보디 페인팅이 이 범주에 속한다.

마. 포토 라이트(photo light) 메이크업 : 어떤 특정 인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찾아내어 그대로 묘사하는 메이크업으로, 카피 메이크업 이라고도 한다.

바. 스테이지(stage) 메이크업 : 무대에서 관객에게 멀리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메이크업으로, 윤곽을 잘 살리고 대비가 확실히 되는 색과 선을 사용하여 멀리서 확실하게 보이게 한다. 따라서 가까이에서는 메이크업이 자연스럽게 못하다.

사. 브라이달(bridal) 메이크업 : 일명 우리나라에서는 웨딩(wedding) 메이크업 이라고 하며, 의식적인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세레모니(ceremony) 메이크업 이라고도 한다. 신부 본연이 갖추어야 할 청순, 순결, 환희의 이미지로 보이게 하여야 하며, 개성을 강조하고 자연미를 살려야 되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지나친 유행 화장이나 관능적 강조 메이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아. 필름(film) 메이크업 : 흑색, 혹은 칼라 필름으로 나누어지며 주로 상업용 영화나 광고(인쇄 매체)를 찍기 위한 메이크업으로, 테크닉이 섬세하여야 하며 오래 지속되기 위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명암(high light & low light)을 골격에 따라 넣어 입체감을 살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TV 메이크업 : 칼라 TV의 화면을 의식한 메이크업으로 조명과 칼라 필름에 잘 조화되는 난색계열 색조를 주로 사용하고 밝은 톤과 강한 톤은 돌출되거나 확대되어 피해야 되며, 어두운 톤은 그 주위의 경계를 어둡게 끌어들여 면 전체의 윤곽을 흐리게 함으로 피해야 하며 윤곽의 명암을 잘 살려야 한다.

카. 스트레이트(straight) 메이크업 : 주로 TV 화면에서 정면으로 나오는 앵커나 아나운서들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메이크업으로, TV 메이크업의 유사점과 같다.

타. 에이지(age) 메이크업 : 한 인물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메이크업 이다.

메이크업에 있어 사용되는 색채 배색의 종류와 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색채 배색의 종류와 효과

구분	색상	방법	효과
동일 색상의 배색	연두+초록 주황+빨강	같은 계통의 가장 가까운 색의 배색	차분함, 시원함, 솔직함, 정적임, 간결함
유사 색상의 배색	청색+보라 연두+노랑	색상환에서 가까운 색의 배색	협조적, 온화함, 화합적, 동적임, 화려함
반대 색상의 배색	빨강+청록	색상환 중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반대색의 배색	강함, 똑똑함, 생생함, 동적임, 화려함
단색 배색	회색+모든 유채색 검정+모든 유채색 흰색+모든 유채색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	무난함, 뚜렷함, 개성 표현에 좋다

메이크업은 머리 각 부분의 형태와 색상의 조화뿐만 아니라 머리 모양, 의상, 장소,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각각 어울리는 스타일로 연출한다.

메이크업 이외에도 외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헤어스타일이다. 헤어스타일이란 머리형이나 머리 형태, 헤어 트렌드를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hair do’라고 하며, 프랑스어로는 ‘coiffure(코아 퓨르)’라고 한다.³⁵⁾ 예로부터 모발을 가다듬는 것은 신체 보호의 기능 이외에 주술적이며 심미적인 기능을 지녔으며, 인간의 종합적 표현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제 헤어스타일 이라는 것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의 하나로서 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개성 표현 수단이 되었고, 매스 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유행 및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복식

35) 복식사전, (1995), 라사라 출판사, p.284.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³⁶⁾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 오엽주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우리나라 최초로 ‘화신 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을 최초로 개최하였다.³⁷⁾ 헤어스타일은 패션과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커트 스타일, 단발 스타일, 롱 헤어스타일, 파마 스타일, 웨이브 스타일 등이 유행하기도 하고 매스컴,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1950년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커트 스타일의 대명사인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 전 세계 헤어스타일에 센세이션을 일으켜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사이에 급속히 유행하였다.³⁸⁾

1970년대는 커트 붐이 절정을 이루고 내추럴 경향으로 제 각기 개성화를 추구하는 거지 커트, 쇼트커트가 유행하고, 의복의 청바지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남성의 장발과 히피 스타일과는 대조적으로 가벼운 웨이브 스타일의 바람결 헤어스타일과 커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절약되는 간편한 스타일이 원하게 되자 바디 파마라고 부르는 자연스런 웨이브 파마로 반 곱슬머리처럼 보이는 스타일이 유행하고, 여성들의 머리 모양은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 커트와 퍼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는 파마의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세계적인 헤어 컬렉션에 참가하였으며, 새로운 미용기구가 개발되며 의복에서 스커트의 미니와 샤넬, 미디, 맥시 등의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헤어에서도 파마의 디자인이 다양해졌는데, 젊은 층에서는 무스, 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앞머리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유행하고,

36) T. Cash., & T. Pruzinsky., (1990), op.cit, p,120.

37) 민봉기, (1995), 연대별로 본 헤어변천, 한국생활문화100년(1894-1994), 태평양 50년사 부록, 장원, pp.77-118.

38) 김희숙, (2000),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p.59.

나이 든 여성 사이에서는 어느 길이든 굽게 파마하여 곱이 두드러진 일반적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³⁹⁾

현대에는 의복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듯이 헤어스타일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고 얼굴형에 맞추어 참조하게 되며, 자기 고유의 한 가지 스타일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는 풍조가 연예계나 최첨단의 멋을 추구하는 여성들 사이에 유행되고, 일반인들도 한 가지 헤어스타일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제는 커트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마, 염색, 브릿지가 헤어 패션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⁴⁰⁾

이미지를 대상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라고 할 때,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경험과 관련된 정보의 인식에 의한 결과로서 형성되는데,⁴¹⁾ 헤어스타일 이미지란 헤어스타일에 대한 경험과 관련 정보의 인식에 의한 결과로서 형성된 인상을 말하였다.

Terry & Davis는 헤어스타일에 따라서도 얼굴형의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얼굴 매력은 눈, 입, 얼굴 형태, 머리카락, 그리고 코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헤어스타일도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도주연과 권영숙은 여대생의 경우 짧은 머리일수록 발랄하고 젊게 보이는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은 젊고 청순하며 단정한 느낌을 주고, 곱이 있는 헤어스타일은 노숙하고 성숙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은 넘긴 스타일 보다 평범하고 수수하고 소극적인 느낌을 주며, 가르마가 있는 스타일은 가르마가 없는 스타일 보다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⁴²⁾

Conner, Peters & Nagasawa의 신체와 헤어스타일, 의복의 3가지 관계에 대한

39) 민봉기,(1995), op.cit.

40) 김희숙,(2000), op.cit.

41) Herb Donald Olding, (1961), *Americian Psychologist* 16, p.7.

42) 도주연, 권영숙, (1992), hairstyle 변화에 관한 얼굴 이미지 요인과 분석: 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16(3). pp.243-250.

연구에서, 단단한 골격과 짧은 머리로 다소 운동선수로 보여 지는 여성에게 지적인 옷과 사교적인 옷을 입혔더니 운동선수로 느껴진다고 대답하였다. 즉, 의복만으로는 지적이거나 사교적인 느낌을 전달하지 못하고 신체와 헤어스타일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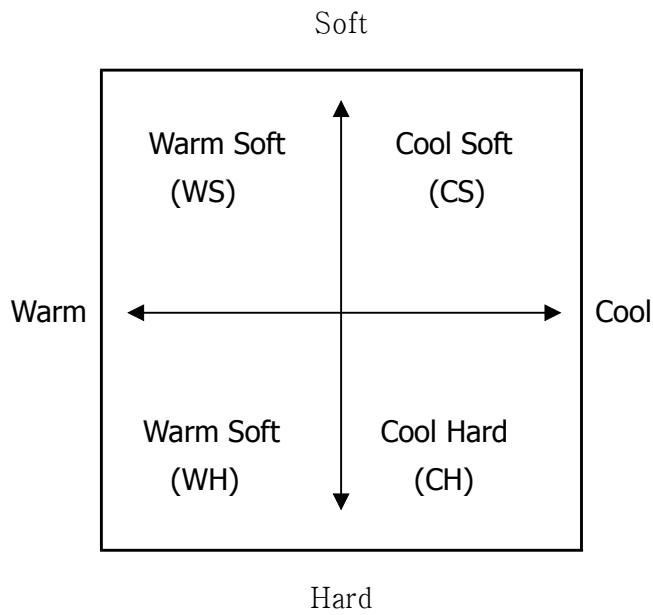
헤어스타일이 토털 패션을 갖추는 일부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특히 헤어스타일이 얼굴 이미지와 얼굴 형태에 끼치는 영향은 보다 직접적 이다.⁴³⁾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비중이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Imai에서는 오스독스계 이미지, 쿨계 이미지, 페미닌 이미지, 그리고 로팬틱 이미지 등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JFAI에서는 큐트 이미지, 캐주얼 이미지, 액티브 이미지, 내추럴 이미지, 페미닌 이미지, 클래식 이미지, 퓨어 이미지, 스포티 이미지 그리고 모드 이미지 등 9가지로 분류하였다.⁴⁴⁾

<그림 2> 이미지 구성 시스템은 헤어스타일을 4가지의 이미지 존으로 분류한 반면, <표 2> JFAI는 9가지 이 미지 존으로 분류하고 있다. JFAI는 웹 하드 존(WH), 웹 소프트 존(WS), 쿨 하드 존(CH), 쿨 소프트 존(CS)으로 구성되어 있는 4가지 존을 9가지 분류 하였다. 왜냐하면 색상을 난색, 한색 그리고 중간색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명도도 마찬가지로 고명도, 저명도 그리고 중명도 3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43) 도주연,(1991), op. cit.

44) M. Imai, (1999), *counseling Cut & Color* (東京; 新美容出版株式會社), p.5.



<그림 2> 4가지 이미지 존

JFAI에서는 9가지 존을 이미지 워드로 만들었다. 한색 계, 고명도, 저채도의 위치에 퓨어 이미지 존(CS), 한색 계, 중명도, 중채도의 위치에 스포티 이미지 존(CN), 한색계, 저명도, 중고채도의 위치에 모드 존(CH), 중간색, 고명도, 중고채도의 위치에 내추럴 존(NS), 중간색, 중명도, 중저 채도의 위치에 페미닌 존(NN), 중간색, 저명도, 중고채도의 위치에 클래식 존(NH), 난색계, 중명도, 중고채도의 위치에 캐주얼 존(WN), 그리고 난색계, 저명도, 저채도의 위치에 액티브 존(WH) 이다.

<표 2> 9가지 이미지 존

Soft			
	큐트 존 (WS)	내추럴 존 (NS)	퓨어 존 (CS)
Warm	캐주얼 존 (WN)	패미닌 존 (NN)	스포티 존 (CN)
	액티브 존 (WH)	클래시컬 존 (NH)	모드 존 (CH)
Cool			
Hard			

JFAI는 헤어스타일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헤어스타일 분석 16 항목과 인물 분석 16 항목으로써 헤어스타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어울림 법칙을 사용한다.

헤어 디자인이라고 일괄적으로 말해도 몇 백, 몇 천개의 스타일이 있어 그 헤어스타일을 이미지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헤어스타일을 원뿔스, 그라데이션, 레이어 라는 단의 구성 또는 길이에 따른 차이나 펌 스타일, 스트레이트 스타일 등의 방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런 분류 방법은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⁴⁵⁾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JFAI에서는 16 항목으로 구성된 헤어스타일 분석을 사용하여 헤어스타일을 이미지별로 분류하였다.

45) JFAI, (2001), 앞의 글, p.13.

3. 패션 룩 유형에 따른 이미지 연구

미국의 유명한 의상 컨설턴트인 Dawn E. Waldrop은 사람들이 옷을 입는 스타일을 대체로 내추럴한 스타일, 클래식한 스타일, 낭만적인 스타일, 대담한 스타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⁴⁶⁾

박화순은 의복과 액세서리 이미지를 10가지로 나누고 있다. 로맨틱 이미지, 클래식 이미지, 내추럴 & 컨트리 이미지, 엘레강스 이미지, 모던 & 시크 이미지, 스포츠 & 캐주얼 이미지, 에스닉 이미지, 매니시 & 댄디 이미지, 소피스티케이티드 이미지, 페미닌 이미지 등이다.⁴⁷⁾

Sweat & Zentner는 클래식, 내추럴, 로맨틱, 드라마틱 등 4가지 의복 스타일을 사용한 연구에서 내추럴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사회성이 있는 사람으로, 클래식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가장 인습적이고 격식을 차리는 사람으로, 드라마틱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가장 비 인습적인 사람으로, 로맨틱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가장 사회성이 높고 연약한 사람으로 평가하였다.⁴⁸⁾

외모 이미지 유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되고 있는 외모 이미지에는 내추럴(Natural) 이미지, 클래식(Classic) 이미지, 로맨틱(Romantic) 이미지, 그리고 드라마틱(Dramatic) 이미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림4>에서 <그림76>의 출처는 인터넷 퍼스트 뷰 우 코리아(firstviewkorea)에서 2005 S/S부터 2006 A/W까지의 자료이다.

46) McCoy, Michelle, (2000), Sound And Look Professional on TV the Interne, Bonus Books, pp.114~116.

47) 박화순, (2002), 패션 마케팅과 코디네이션, 서울: 시공사, p.108.

48) S, J ,Sweat., & M. A, Zentner., (1985), Attributions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icheal R.Solomon(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p.26.

1) 클래식 이미지

클래식은 고적적인, 고상한, 전통적인, 보수적인, 고풍의, 중후한, 깊은 맛 등의 의미가 있다. ‘원래의 것’이란 충실감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손에 익숙해지고 사용되어진 느낌으로 깊이감과 격조감이 내재되어 있는 분위기를 뜻하며, 전통성과 윤리성을 존중하고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이미지를 뜻한다.

클래식한 스타일은 어떤 직업, 어떤 장소에도 무난하게 어울린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다소 보수적이고 격식에 매인다. 이들의 헤어스타일은 매우 단정하다. 여성의 경우 두껍지 않게 깨끗한 화장을 한다. 자칫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점을 악세사리나 모자 등을 사용해서 보완할 수 있다.

클래식한 이미지의 패션에서는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분위기, 지속성 등을 생명으로 하는데 성숙한 이미지와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이미지 연출이 중요하다. 전통을 중요시 하는 이 이미지는 디자인이 비교적 단순하며 스타일은 유행의 변화가 많지 않고 단지 색상이나 소재 등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그친다.

<그림4>, <그림7>에서 보여 지듯이 클래식한 패션은 평범한 스타일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전체적으로 악세사리로 코디네이션 하여 연출된다.

색상은 갈색 톤을 중심으로 깊이 감 있는 색상이 선호되며 색상 간의 대비감이 강하지 않는 배색을 선택한다(그림6,4). 천 소재로는 광택감이 있는 벨벳이나 따스한 느낌이 드는 트위드 고급 소재인 울 등이 적합하며 무늬는 유기적이고 구상적 무늬인 그린 체크, 타탄 체크 등을 많이 사용한다. 대표적인 패션 유형은 테일러드 슈트, 셔츠 드레스, 가디건 등이 있다(그림5, 7, 9, 11).

메이크업에 있어 클래식 이미지의 공통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흰 피부에 붉은 입술, 그리고 발그스름한 볼로 나타나 있다(그림13, 14, 16). 특히 메이크

업이 보편화 되지 않은 동양에서 조차 흰 피부를 갖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다. 현대가 아무리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라 해도 흰 피부에 붉은 입술을 가진 여성이 추해 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계속 반복되는 메이크업 형식을 클래식 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 일정한 시기에 유행했던 스타일이 다시 새로운 시대감각에 의해 재창조 된 것으로 ‘레트로 스타티브’ 라고 부르지만 보통 생략해서 ‘레트로’ 라는 명칭으로 주로 불리어진다.

클래식한 헤어스타일은 동·서양 함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스타일의 표현이다. 짧은 스타일 형태로는 스트레이트 형태의 단발머리 스타일인 보브 스타일의 표현이 잘 어울린다(그림15, 17, 18).



<그림 3> 클래식 이미지 맵

<표 3> 패션 룩 유형에 따른 클래식 이미지 표현 방법

<p>표현 분류</p>	<p>중간색으로 고상한 느낌의 색상으로 연출되며 Acc는 세트로 연출하고 품격 있고 우아한 쪽의 보수적인 스타일로 표현한다.</p>
<p>Make-up & Hair</p>	<div data-bbox="363 468 1257 676" data-label="Image"> </div> <p>클래식한 메이크업의 색상은 중간색으로 고상하게 브라운계열이 주조를 이루며 윈 포인트로 입술을 강조한 스타일로, 헤어는 잘 정돈된 단발머리와 깔끔하게 올린 업스타일로 연출한다.</p>
<p>Fashion style</p>	<div data-bbox="347 898 1161 1236" data-label="Image"> </div> <p>품격 있는 우아한 스타일로 체크무늬문양 사용이 보이고 고급소재를 사용하고 악세사리와 패션스타일이 조화롭게 연출 한다</p>
<p>Color</p>	<div data-bbox="363 1361 1136 1626" data-label="Image"> </div> <p>중간 톤의 고상한 느낌의 색상으로 Dull Tone으로 연출된다</p>



<그림 4> 클래식패션
(Celine 2006 SS)



<그림 5> 클래식패션
(Chanel 2005 SS)



<그림 6> 클래식패션
(Eley Kishimoto 2006 SS)



<그림 7> 클래식패션
(Fendi 2006 SS)



<그림 8> 클래식패션
(Ralph Lauren 2004 FW)



<그림 9> 클래식패션
(Scherrer 2005 SS)



<그림 10> 클래식패션
(Valentino 2005 SS)



<그림 11> 클래식패션
(Ralph Lauren 2005 SS)
2005 ss



<그림 12>클래식메이크업헤어
(Chanel 2005 SS)



<그림 13>클래식메이크업헤어
(Marni 2006 SS)



<그림 14>클래식메이크업헤어
(Ralph Lauren 2005 FW)



<그림 15> 클래식메이크업헤어
(Chanel 2005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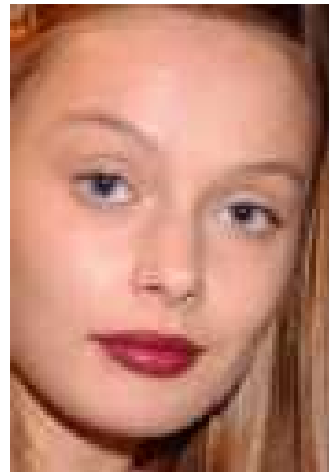
<그림 16> 클래식메이크업,
(Chanel 2005 SS)



<그림 17>클래식메이크업헤어
(Ralph Lauren 2005 FW)



(그림 18) 클래식메이크업
(Valentino 2005 SS)



(그림 19)클래식메이크업
(Tuleh 2005 FW)

2) 내추럴 이미지

일명 자연주의(Naturalism)라고 지칭되는 Natural은 자연을 미화하거나 이상화 하지 않고 자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속에 젖어들면서 자연과 같이 호흡하는 표현양식 즉, 작가가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현상의 하나로써 작품을 만들어내는 조형 작업으로서 형태, 구성, 효과 등에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채택하고 응용하려는 제작태도라 할 수 있다.

내추럴 이미지는 자연이 포용하고 있는 정다움, 온화함 등을 생활 모습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자연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린 흙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공예품, 도기, 나무 결을 살린 가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풀이나 나뭇잎 패턴으로 물들인 이미지에서 느낄 수 있는 소박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든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내추럴 이미지는 자연스럽고 자유로우며, 부드럽고 친근감이 있는 것이어서 가족(family) 감각에 잘 어울린다. 내추럴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은 베이지, 아이보리 등 YR계를 중심으로 한 소박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색이 주조색이 되며, 그린의 조화로 자연의 느낌을 더해 준다(그림22, 23, 26).

내추럴한 스타일의 사람은 다림질이 필요 없는 의상을 선호한다. 의상에 특별한 패턴도 없다. 패턴이 있다면 연한 체크무늬 나 물방울무늬가 대부분이며, 소재도 다소 두껍고 독특한 질감을 좋아한다(그림25, 27).

간편한 운동화에 청바지나 면 티셔츠를 좋아하는 이 같은 스타일은 카메라의 민감성을 주의해야 한다. 시청자들에게 보여 지는 적절한 스타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내추럴하고 캐주얼한 차림을 선호하더라도 색상의 특징과 표현이 부적절한 없는 브이(V)넥 니트를 입고 나오는 경우 초라해 보이고 단정한 맛이 떨어진다.

내추럴한 스타일의 여성은 정장보다는 스포티한 재킷을 선호한다. 또한 그 안에 짙은 색상의 셔츠를 즐겨 입는다. 내추럴한 스타일은 열이면 열 모두 면제품을 좋아한다.

내추럴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에서도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화장도 별로 하지 않는데,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선 적어도 옅은 화장을 해야 한다

패션에 있어 내추럴은 인간 본연의 선을 그대로 살린 형태와 가공되지 않은 천연 소재의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 등을 응용하여 자연미를 강조한다.

천 소재로는 목면, 마, 울 등의 소재와 니트 등 따뜻하고 이완된 것들이 많이 사용되며 패턴으로는 장식이 없는 것이나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 초목 등의 무늬, 천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손으로 짠 듯한 무늬, 그 외에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나 체크, 스트라이크 등의 패턴이 많이 이용된다(그림 21, 24, 27).

소품으로는 캔버스 천, 부드러운 가죽 등의 자연 소재를 사용한 모자나 가방 등 친숙하고 부드러운 것들이 어울린다. 메이크업은 최소한의 제품으로 최소한의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한다.

입술은 약간의 립 그로스와 입술 윤곽을 잡아주고 아이라이너는 사용하지 않으며, 속눈썹 표현은 마스크라는 살짝 하며 펜슬로 눈의 윤곽을 잡아준다. 볼터치는 살구색(peach)으로 살짝 마무리 한다. 피부 표현은 본래의 피부색과 두께는 비슷하게 하며 두껍지 않도록 얇게 처리한다. 눈썹, 눈, 입술, 볼은 주황과 갈색을 이용해 입체적이고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단순하고 편안한 느낌의 메이크업이 어울린다(그림 29, 31, 32).

헤어는 스트레이트 생머리나 자연스런 스타일을 추구하며 롱 스타일의 긴 머리는 한 가닥으로 뒤로 묶는 포니테일과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미지를 표현한다⁴⁹⁾(그림 28, 30, 33).

노랑색계통, 주황색계통을 중심으로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과 가다듬지 않은 불규칙적인 형태의 스타일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머리 스타일 중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려주고 얼굴 윤곽선을 부드럽게 강조해 주는 스타일이 어울린다.

49) 서윤경, 김주덕, (2003), 여대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헤어 컬러와의 관계, 한국 미용학회지, Vol9, No2, pp.192-194.



<그림20> 내추럴 이미지

<표 4>패션 룩 유형에 따른 내추럴 이미지 표현 방법

<p>표현 분류</p>	<p>차분한 느낌과 자유롭고 편안한 캐주얼과 세련된 정장에서도 보여 지는 베이지 카키 브라운 톤 계통으로 자연스러운 스타일에 중점을 둔다.</p>
<p>Make-up & Hair</p>	<div data-bbox="359 430 1289 645" data-label="Image"> </div> <p>내추럴한 메이크업은 한 두 가지 색으로 화장을 한 듯 안한 듯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보여 지며, 헤어는 스트레이트 생머리나 간단한 드라이 연출로 인위적인 스타일을 제외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한다.</p>
<p>Fashion style</p>	<div data-bbox="359 795 1289 1153" data-label="Image"> </div> <p>간단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내추럴스타일은 단색이나 은은한 줄무늬가 주종을 이루며 편안한 자연 색상으로 연출된다.</p>
<p>Color</p>	<div data-bbox="375 1276 1125 1545" data-label="Image"> </div> <p>차분한 회색이 가미된 색과 베이지 브라운톤과 카키 톤이 강세로 연출된다.</p>



<그림 21> 내추럴패션
(Anna sui 2006 SS)



<그림 22> 내추럴패션
(Betty Jacson 2006 SS)



<그림 23> 내추럴패션
(Buberry Prorsom 2006 SS)



<그림 24> 내추럴패션
(Clements Riberio 2006 SS)



<그림 25> 내추럴패션
(Wakeley 2006 SS)



<그림 26> 내추럴패션
(Bill Blass 2006 SS)



<그림 27>내추럴메이크업헤어
(Prada 2006 SS)



<그림 28>내추럴메이크업헤어
(BCBG 2006 SS)



<그림 29> 내추럴메이크업헤어
(Marni 2006 SS)



<그림 30> 내추럴헤어
(Marni 2006 SS)



<그림 31> 내추럴메이크업
(Elie Saab 2005 SS)



<그림 32> 내추럴메이크업헤어
(Aquascutum 2006 SS)

3) 로맨틱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는 꿈꾸는, 공상적, 전기적, 낭만적인 의미로 어딘지 모르게 감미로운 분위기의 상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다운 부드러움, 우아함,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꿈꾸는 듯한 6월의 추억과 우아한 여름 꽃들로 가득한 꽃다발을 연상시켜 준다.

이 이미지에서 어울리는 색상은 가볍고 감미로운 느낌을 주는 색채그룹의 색상을 중심으로 하며, 핑크를 로맨틱 이미지의 대표적인 색으로 하고, 빨강에 다양한 양의 흰색을 섞어 만든다(그림34, 38, 41).

로맨틱한 스타일 이라면 카메라 앞에선 평소 좋아하는 꽃무늬 프린트 패턴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좀 긴 헤어스타일을 연출한다. 부드러운 소재를 좋아해 실크 의상을 즐기나 자칫 옷감에서 빛이 반사하여 스튜디오 조명에 의해 번뜩거릴 수 있다. 따라서 혼합사 제품을 사용한다.

패션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 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다<그림36, 48, 43>. 패션에 있어 로맨틱도 레이어드에 초점을 맞춘 코디네이션, 봉제 상의 특수한 테크닉을 그대로 사용한 프릴, 언더 스커트의 페티 코트 등이 좋고 소박한 느낌의 목면 소재에 꽃무늬, 체크, 물방울 무늬가 효과적 이다(그림34, 35, 37, 40).

소품으로는 코사지와 리본 등을 사용해 로맨틱의 느낌을 잘 나타낸다.<그림 42,39> 로맨틱 이미지에는 미네크, 이너슬, 환타스틱, 노스텔지아 패션이 포함되어 클래식 패션과는 항상 병행하고 스포티 패션과는 언제나 역행하고 있다.

로맨틱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위해서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 낭만적인 느낌, 부드러운 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부 톤은 한 두톤 밝게 표현하고, 파스텔 톤을 중심으로 사용하여 립과 볼터치와 세도우를 표현한다.

전체적인 색상은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의 분홍, 노랑, 연두, 보라 계통의 흰색이 많이 가미된 색을 중심으로 그라데이션 배색을 하면 효과적이고 직선보다는 곡선 위의 메이크업이 좋다.

질감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보다 촉촉한 느낌의 것이 어울리며 약간의 필을 써도 무방하다. 또한 원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 경우에는 볼에 포인트를 주면 귀여운 이미지가 강조되어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소녀의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의 윤곽을 뚜렷이 하기 위하여 어두운 그림자를 넣게 되면 그 이미지가 감소되므로 주의한다(그림46, 50, 51).

로맨틱한 헤어스타일은 꿈과 낭만을 갖는 미의식으로 완숙한 아름다움 보다는 미성숙으로서 어딘지 모르게 소녀티가 나는 이미지를 일컫는 스타일로, 가장 로맨틱한 헤어스타일은 덩굴 같은 모양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을 듯 말 듯 부드러운 물결 모양으로 리본이나 머리핀을 사용해 고정시킨 형태이다(그림47, 48, 49).

짧은 길이의 머리 보다는 긴 머리카락에 어울리며,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밝은 톤의 색상이 적당하다. 부분적인 염색을 할 경우에는 강한 대비의 배색보다 약한 대비의 배색이 로맨틱 분위기에 더 어울릴 것이다.

<표 5> 패션 룩 유형에 따른 로맨틱 이미지 표현 방법

<p>표현 분류</p>	<p>색상은 파스텔 계열의 색상이 주조를 하고 지극히 여성스럽고 부드럽게 연출한다.</p>
<p>Make-up & Hair</p>	<div data-bbox="400 454 1326 663"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로맨틱한 메이크업의 이루어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하는 편이다. 로맨틱한 헤어는 흐르는 느낌의 웨이브의 긴 머리를 연출한다.</p>
<p>Fashion style</p>	<div data-bbox="400 763 1289 1126"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리본이나 레이스 실크 스카프 등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 아기자기하고 예쁜 스타일을 선호하며, 꽃이나 물방울무늬를 선호하며 여성적이고 낭만적인 옷을 연출한다.</p>
<p>Color</p>	<div data-bbox="416 1294 1166 1554"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매우 창백한 톤이 강세를 이루고 있고, 연한회색이 가미된 톤으로 연출한다.</p>



<그림 34> 로맨틱패션
(Andrew GN 2006 SS)



<그림 35> 로맨틱패션
(Balenciaga 2006 SS)



<그림 36> 로맨틱패션
(Basso & Brooke 2006 SS)



<그림 37> 로맨틱패션
(Cacharel 2006 SS)



<그림 38> 로맨틱패션
(Carolina Herrera 2006 SS)



<그림 39> 로맨틱패션
(Elspeth Gibson 2006 SS)



<그림 40> 로맨틱패션
(D&G 2006 SS)



<그림41> 로맨틱패션
(Doir 2005 FW)



<그림 42> 로맨틱패션
(Elie Saab 2005 SS)



<그림 43> 로맨틱패션
(Yoichi Nagazawa 2006 SS)



<그림 44> 로맨틱패션
(Blumarine 2006 SS)



<그림 45> 로맨틱패션
(Fendi 2006 SS)



<그림 46> 로맨틱메이크업
(Basso & Brooke 2006 SS)



<그림 47>로맨틱메이크업헤어
(Betsy Johnson 2006 SS)



<그림 48>로맨틱메이크업헤어
(Missoni 2006 SS)



<그림 49> 로맨틱메이크업헤어
(Roberto Cavalli 2006 SS)



<그림 50> 로맨틱메이크업헤어
(Dior 2005 FW)



<그림 51> 로맨틱메이크업헤어
(Zac Posen 2006 SS)

4) 드라마틱 이미지

드라마틱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요소를 배제한다. 눈에 띄는 과장된 극단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기하학적인 직선라인과 매우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에 디테일은 극소화한다.

인위적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효과를 준다. 역삼각형 혹은 좁은 장방형의 실루엣 연출, 어깨라인을 강조하고 콘트라스트가 강한 배색을 사용하며, 여기에 보석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색조, 즉 빨강색, 연지색, 밝은 자홍색, 사파이어 파랑색, 을 사용하여 매우 과장되고 전위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

드라마틱 타입은 패션에 있어서 극단적이다.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입는 여성은 대개 키 크고 말랐다. 특히 옷 라인이 직선이거나 딱딱하게 마무리한 소재 및 조그만 하게 물결치는 양식의 옷을 선호한다(그림53, 56, 63).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추구한다면 매우 단순하게 입거나 넉넉하게 정교하게 장식한 직물이나 스타일로 입는다. 패션 아이템은 넓은 어깨를 강조하거나 색상에 있어서도 이국적인 색상의 옷을 선호하며 광택 있거나 번쩍이는 소재로 된 중간색을 포함한 옷을 좋아한다(그림55, 58, 59, 62). 문양에 있어서는 대담하고 거칠고 선명하고 토속적인 기하학이나 페이스릭 무늬 혹은 틀에 박힌 디자인을 선호한다<그림59, 60, 65>. 또한 새틴, 크레페, 브로케이드 하는 금속성의 직물 혹은 극적인 이목을 끄는 직물로 된 옷을 입는다.

이들은 대개 신장이 크기 때문에 허리나 그 이하부위를 강조하는 것이 어울리며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벨트 등을 착용하는 것이 선호된다. 보석은 과감하고 단순하고 크고 혹은 정교한 게 좋다(그림54, 57, 61).

메이크업은 대담하게 연출 한다. 유행에 민감하고, 자기 자신을 개성적으로 잘 표현하고, 칼라 대비가 강렬하여 당당하고 과장된 개성을 표현하여, 스모키 메이크업 등 다소 강한 메이크업을 한다(그림68, 69, 70, 71, 72).

헤어는 손질이 잘 되었다면 모든 헤어스타일이 가능하다. 뒤로 빗어 넘겨서 매끈하게 묶어 틀어 올린 스타일과 기하학적 형태의 짧은 보브가 선호된다(그림73, 74, 75, 76).

또한 단순하고 화려한 곱슬을 하고, 매끄러운 chignon 뒷머리를 만들며, 직선으로 뒤로 머리를 넘기는 스타일이 어울리며 선호된다.



<그림 52> 드라마틱 이미지 맵

<표 6> 패션 룩 유형에 따른 드라마틱 이미지 표현 방법

<p>표현 분류</p>	<p>원색의 강렬하고 화려한 색상과 대비가 강한 스타일로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싶은 독특하고 강력한 스타일로 연출한다.</p>
<p>Make-up & Hair</p>	<div data-bbox="399 436 1324 638" data-label="Image"> </div> <p>드라마틱한 메이크업은 여러 가지색을 배합하여 눈에 띄게 하는 스타일로 눈을 또렷하게 강조하는 스모키 메이크업이 주로 보여 지며, 헤어는 거칠고 대담한 컷과 강한 웨이브로 연출한다.</p>
<p>Fashion style</p>	<div data-bbox="406 779 1316 1093" data-label="Image"> </div> <p>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벨트와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며 유행에 앞서며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추상적이고 대담한 무늬의 스타일로 연출한다.</p>
<p>Color</p>	<div data-bbox="430 1243 1189 1512" data-label="Image"> </div> <p>원색의 강렬하고 화려한 색상 대비가 강한 스타일로 연출한다.</p>



<그림 53> 드라마틱패션
(Allyson Jacobs 2006 SS)



<그림 54> 드라마틱패션
(Betty Jackson 2006 SS)



<그림 55> 드라마틱패션
(Mason BY Michelle Mason 2005 FW)



<그림 56> 드라마틱패션
(Carolina Herrera 2006 SS)



<그림 57> 드라마틱패션
(Scherrer 2005 SS)



<그림 58> 드라마틱패션
(Manish Arora 2006 SS)



<그림 59> 드라마틱패션
(Bernhard Willhelm 2006 SS)



<그림 60> 드라마틱패션
(Louis Vuitton 2006 SS)



<그림 61> 드라마틱패션
(Luella Bartly 2006 SS)



<그림 62> 드라마틱패션
(Giles 2006 SS)



<그림 63> 드라마틱패션
(Gucci 2006 SS)



<그림 64> 드라마틱패션
(Lrakli Nasidze 2005 SS)



<그림 65> 드라마틱메이크업
(On Aura Tout Vu 2005 SS)



<그림 66> 드라마틱메이크업
(Dior 2005 SS)



<그림 67>
드라마틱메이크업헤어
(Dior 2006 SS)



<그림 68> 드라마틱메이크업,
(Dior 2006 SS)



<그림 69>
드라마틱메이크업헤어
(Felipe Oliveria 2005 SS)



<그림 70>
드라마틱메이크업헤어
(Georges Hobeika 2005 SS)



<그림 71> 드라마틱메이크업
(Jean Paul Gaultier 2005 SS)



<그림 72> 드라마틱메이크업
(Khaled 2005 SS)



<그림 73> 드라마틱메이크업
(Allyson jacobs 2006 SS)



<그림 74>
드라마틱메이크업헤어
(Laurent Mercier 2005 SS)



<그림 75>
드라마틱메이크업
(Manish Arora 2006 SS)



<그림 76>
드라마틱메이크업헤어
(Khaled 2005 SS)

4. 여성 정치인 외모이미지

선거에서 이미지와 이슈의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에 의하면, 국민들이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 이미지 보다는 이슈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40% 이상의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즉, 이미지를 통한 여론 형성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 도덕성, 정당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특정 후보자에게 느끼는 총체적 이미지를 통하여 후보자의 선호를 판단하여 투표하려고 한다. 특히 TV가 정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1) 정치인의 이미지 구성요소

대중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이미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는 유권자에 대한 궁극적인 투표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후보자가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는 선거 공약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선거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 비례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형성 요인의 변화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후보자 이미지는 외모적 인상, 말투, 태도, 제스처 등 후보자의 시청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품이나 능력 같은 내면적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중

50) D. F. Hahn., & R. M. Gonchar., (1972), *Political myth: The image and the issue* Today's Speech, 20(3), pp.57-65.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치인의 이미지란 선거에 출마한 인물의 지도자로서 역량, 자질, 신뢰성, 겹점, 외모, 목소리, 인상에 관하여 유권자들이 머릿속에 갖는 상(像)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이미지를 대상이나 사건 혹은 사람에 의해서 투사된 지각된 속성들의 집합에 부과되는 한 인간의 구조라고 한다며, 후보자의 이미지는 유권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후보자가 전하는 메시지(말씨, 속성, 내용)에 근거하여 유권자가 가지는 후보자에 대한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²⁾

사회 인지론으로 본 후보자의 이미지는 개인이 지닌 기존의 후보자에 대한 지식 체계에 통합되어 있는 정보 가운데 특정 후보자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 인상, 주장 등의 정보 집합체라고 말하기도 한다.⁵³⁾

후보자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후보자에 따른 이미지의 이분법적 연구에서 시작이 되었다. Sigel은 후보자의 이미지를 업무에 중요한 속성과 개성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업무에 중요한 속성은 정직, 지적, 독립성을, 개성적 속성들로는 언변, 친근감을 들고 있다.⁵⁴⁾

McCroskey은 공인의 신뢰도 차원의 구성요소로서 성격과 믿음성의 두 가지 차원을 확인하였으며,⁵⁵⁾ Berlo, Lemert & Mertz는 안정성, 자질, 역동성의 세 가지 차원을 구별하였다.⁵⁶⁾ 그들은 안정성 요인들로 친절, 안전, 친근, 정직, 올바른 등

51) R. S. Sigel, (1964), Effect of partisanship on the perception of political candidate. Public Opinion Quarterly, 28, pp.483-496.

52) D. Nimmo, (1974), Images and voters' decision-making process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 pp.771-781.

53) 이준웅, (1998), '후보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 인지론적 설명;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43)2, pp.243-282.

54) S. Sigel, Robota, (1964), " The effect of partisanship on the perception of political candidates" Public opinion quarterly 28,3. Fall. pp.483-496.

55) J. C. McCroskey, (1966), Scales for the measurement of ethos. Speech Monograph, 33, pp.65-72.

56) D. K. Berlo., & J. B. Lemert., & R. J. Mertz., (1969-1970), Dimensions for

5개의 속성을, 자질의 요인들로 훈련된 경험이 있는, 자격 있는, 숙련된, 정보적인 등의 5가지 속성들을 들고 있다. 또한 역동성 요인으로는 진취적인, 단호한, 대담한, 능동적인, 정력적인 등의 5가지 속성들을 가장 대표적인 속성들로 들고 있다.

1970년대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이분법적인 연구가 진척을 보이는데, 정치인을 두 개의 성향, 즉 개인적인 매력과 힘·세력으로 평가하거나 후보자의 이미지를 공인으로서 정치인들의 행위와 자질에 연관된 속성과 스타일적 역할 속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다차원적 접근도 1970년대에 시도 되었는데, McCroskey, 젠트 & 토드는 외향성, 성격, 침착성, 매력, 사회성의 5가지 분류하였다.⁵⁷⁾

Kennedy & McGoven은 리더십, 외향성, 침착성이 평가 요소로 활용이 되었다.⁵⁸⁾

Powell은 후보자 이미지 차원을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와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것으로 구분을 했다.⁵⁹⁾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관해서는 외향성, 안전, 사회성, 능력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고, 지지하는 후보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이미지 요인으로 정보적인, 명량한, 의지할 수 있는 등으로, 유사성 요인으로는 나와 유사하다, 나를 좋아한다. 라고 구분하고 있다.

1980년대에도 모델에 대한 인식이 없이 요인 탐색적 연구가 지속이 되었다. Patterson은 후보자 이미지를 스타일 이미지와 정치 이미지의 2가지 차원으로 구

acceptability of message sources, Public Opinion Quarterly, 33, pp. 563-576.

57) J. C. McCroskey, T. Jensen, & C. Todd, (1972), The generalizability of source credibility scales for public figures. Paper presented at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Chicago. In K. L. Hacker, (Ed.), Candidate images in presidential elections (Westport Praeger) p.8.

58) George McGoven, (1975), *Senator in America at 1975*. p.95.

59) L. Powell, (1977), Voting intention and the complexity of political images: A pilot study, Psychological Reports 40, pp.243-273.

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스타일 이미지는 개성, 선거 운동, 업적, 배경, 기타의 내용으로, 정치 이미지는 리더십, 정책, 기타로 나누고 있다.⁶⁰⁾

Shyles는 성격적 특성을 능력, 경험, 정직, 리더십, 개성, 힘, 기타 등 8개의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⁶¹⁾ Miller, Watterberg & Maianchuk은 후보자의 이미지를 5가지 뚜렷한 차원을 밝혔는데 능력, 성실성, 신뢰감, 카리스마, 개인적 특성 등이 그것이다.⁶²⁾

1990년대 들어와서 Funk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미국 대통령 후보의 전반적인 평가 결정 요인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Kinder가 분류한 성실, 리더십, 성실성, 동정심 등 4가지 차원으로 축약하고 있다. 즉, 능력과 리더십이 한 차원으로 구성되고, 성실성과 동정심을 별개의 차원으로 하는 3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하였다.⁶³⁾

지금까지 살핀 후보자의 이미지 구성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60) T. Patterson, (1980), The mass media election: How America choose their President. New York: Praeger. p.154.

61) L. Shyles, (1988), Profiling candidate image in televised political spot advertisements for 1984: Roles and realities of presidential pollsters at the height of the Reagan ear, Political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5, pp.15-31.

62) A. H, Miller,. M. P,Wattenberg,. & O. Malanchuk., (198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candidate assessments. In K. R. Sanders, L. L. Kaid, & D. Nimmo (Eds.) Political communication yearbook.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pp.183-210.

63) 김영수, (2000), 정치인 이미지 연구,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p.17.

<표 7> 정치 후보자의 이미지 구성요소

연구자	차원	측정 항목
Sigel (1964)	업무 관련 속성	정직, 지성, 독립성, 신중한
	개성적 속성	언변, 친근감, 겸손함, 동정심, 친근함
McCroskey (1966)	성격 /믿음	없음
Berlo, Lemert, Mertz (1969 ~70)	안전성	친절함, 친근감, 안전함, 올바름, 정직
	자질	자격을 갖춘, 숙련된, 훈련된, 경험 있는, 정보적인
	역동성	진취적인, 단호한, 대단한, 능동적인, 정력적인
Kjeldakl, Camichael & Mertz(1971)	리더십/진실성	없음
McCroskey, Jensen, & Todd(1972)	경쟁력/성격/침착성 /외향성/사회성	없음
Kaid, Hirsch(1973)	믿음성/행동거지	없음
Baxta, Young, Bitter(1976)	개인적 매력 고려 /힘·세력 고려	없음
Nimmo & Savage (1976)	정치적 역할 속성	공인으로서 정치적 행위와 자질
	스타일적 역할 속성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것, 선거구민들에 게 자신의 능력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개인적 자질

Powell (1977)	지지하지 않는 후보	안전	선한, 믿을만한, 존경할만한, 좋은 등
		외향	조용한, 수다스러운, 적극적인
		사회성	쾌활한, 친근한
		능력	숙련된, 지적인, 침착한
	지지하는 후보	개인적 이 미지	지식 있는, 쾌활한, 믿을만한
유사성 요 인		좋아하는, 싫어하는	
Anderson, Todd, De mancillas (1978)	태도 동질감 /배경 동질감	없음	
Anderson & Kibler (1978)	신뢰도 /매력/동질감	능력, 외향, 사회성, 침착성, 사회적 매력, 육체적 매력, 배경 동질감, 태도 동질감	
Wakshlag & Edison (1979)	경쟁력, 사회성, 성격, 침착성, 외향성, 유사성, 총체적 매력	없음	
Patterson (1980)	스타일 이미지	개성, 선거 운동, 업적, 배경 등	
	정치 이미지	지도, 능력, 정책 등	
Gerammone (1983)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자의 개인적, 전문적 특성의 합	친근한, 진지한, 이상적인, 피상적인, 지적인, 충동적인, 지배적인, 정직한, 무책임한, 비판적인	
Kinder (1986)	능력	지성, 지식 있는	
	리더십	고무시키는	
	성실성	도덕성, 정직	
	동정심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지의 관심	
Nimmo & Mansfield	이상적 대통령의 이미지	정직, 성실, 지성, 주의 깊은 의사결정, 이성적인 정치 정신과 리더십,	

(1985)		확고한 이슈 입장,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의지
Shyles (1984, 88)	성격적 특성	이타성, 능력, 경험, 정직, 지도 능력, 개성, 힘
Kendall & Yum (1984)	경험/정직/능력/동정/힘	없음
Miller, Wattenbag, & Malenchak (1985, 1986)	능력/성실성/신뢰감 /카리스마/개인적 특성	없음
Funk (1999)	능력+리더십 /성실성/동정심	지적인, 지식 있는, 고무시키는, 지도력 있는,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적인, 정직한, 인정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등

이상에서 살펴본 후보자의 이미지를 요약해보면, 후보자의 전체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물 이미지, 이슈 이미지, 정당 이미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디어 선거 시대에는 이 요소들이 모두 중요하고 이 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후보자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물 이미지이다. 이슈는 선거를 거치면서 달라지기도 하고 현실과 민심을 고려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인물 이미지를 만든 다음 이슈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후보자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표 8>와 같다.⁶⁴⁾

64) 김염제, (1994), 텔레비전 토론 전략, 인물이미지 메이킹: 정치인의 이미지 전략의 모든 것, 서울: 한국 광고 연구원, p,11.

<표 8> 한 후보자의 이미지 구성도

구성 요소	세부 요소
인물	○ 능력 / 개성 / 지도력
이슈	○ 가치 / 현실성 / 공정성 / 대응성 / 발전
정당	○ 통치 철학 / 조직, 인물 / 정책 / 경쟁 정당

2) 국내 정치인의 이미지

국내 정치 후보자의 이미지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국내 정치인의 이미지 중요성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인 것도 19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각 후보 진영은 선거 전략의 수립과 광고 홍보를 위하여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노태우 후보를 위하여 후보 진영에서는 별도 팀을 구성하여 노태우 후보자의 이미지를 세밀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로 만들어 졌으며, 어린 소녀를 안고 귀에 속삭이는 포스터 등을 통해 부드러운 인간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군 출신에 대한 딱딱함과 거부감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성공한 이미지의 한 사례가 되었다.⁶⁵⁾

국내 정치 후보자의 이미지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권혁남은 정치인에 대한 ‘인지 구성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구분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정치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10가지 정도로 구분했다.⁶⁶⁾ 즉, 인상이 부드럽다 - 딱딱하다, 결단력이 있다 - 우

65) 조정섭, (1998), TV정치광고의 광고효과연구: 이미지광고를 중심으로, 광고학 연구, 제 9권 2호, pp.89-116.

66) 권혁남, (1988), 한국인의 정치인지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23-56.

유부단 하다 - 꾸밈이 많다,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믿을 수 있다 - 믿을 수 없다 등으로 구성된 비정치적 성격을 띤 이미지와 민주의식이 강하다 - 독재의식이 강하다, 지도력이 있다, 지도력이 없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다 - 보수적이다, 정치 경륜이 많다 - 정치 경륜이 없다, 자신의 이익 보다는 국가 이익을 추구 한다-국가의 이익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한다 등 정치적 성격을 띤 이미지로 구분했다.

이준웅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후보를 대상으로 한 정치인의 이미지 연구에서 우선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각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수집해 13가지 표준화 된 이미지 항목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직하다, 약하다, 지도력이 있다, 합리적 이다, 믿을 수 있다, 부패했다, 능력 있다, 부드럽다, 강하다, 활발하다, 포용력이 있다, 호감이 간다, 등 이었다.⁶⁷⁾

김현주는 1997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인품과 능력의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인품 요인은 친근감, 도덕성, 솔직함, 너그러움, 겸손의 5개 항목으로, 능력 요인은 박력, 말솜씨, 국정 수행 능력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⁶⁸⁾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 정치 후보자의 이미지 구성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67) 이준웅, (1998), 후보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제 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 2, pp.243-282.

68) 김현주,(1999),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미지형성과 커뮤니케이션, 한국방송학보,제 12호. pp.45- 73.

<표 9> 국내 정치 후보자의 이미지 구성요소

연구자	차원	측정 항목
이준웅 (1988)	구분 없음	정직하다, 약하다, 지도력 있다, 합리적이다, 믿을 수 없다, 부패했다, 능력 있다, 부드럽다, 독선적이다, 강하다, 활발하다, 포용력 있다, 호감이 간다.
김현주 (1999)	인품	친근감, 도덕성, 솔직함, 너그러움, 겸손
	능력	박력, 말솜씨, 국정 수행 능력

국내 정치인의 경우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정당과 정책, 선거 공약 보다는 개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영향으로 지지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표 13>는 대중매체와 TV 토론에 나타난 이미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두 후보자를 특성별로 정리하였다. 제 16대 대선 후보자 노무현과 이회창을 이미지 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표 10> 제 16대 대선 후보자 이미지

이미지 항목		이회창	노무현
외형	생김새	깔끔하게 생겼다/간간하다	평범하게 생겼다
	옷차림	세련되었다/고급스럽다	촌스럽다
	목소리	낮은 좋은 목소리다	달변/호소력이다/사투리를 쓴다.
성격	개성	고지식하다/완고하다	패기 있다/소박하다
	대중성	페미니스트 같다	젊은이에게 인기 있다
능력	지적	똑똑하다/지적하다	
	정치적	판단력이 있다	임기웅변에 강하다
	경륜	경험이 많다/대표주자다	여러 번 실패했다

69) 이준웅, (1998), 후보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 인지론적 설명;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제43권2호, pp.243-282.

이회창의 외양부문에서 생김새는 ‘깔끔하게 생겼다’와 ‘간간하게 생겼다’로 볼 수 있고, 옷차림에서 ‘고급스럽다’, ‘세련되었다’ 이고, 목소리는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다. 성격 부문에서의 개성은 ‘완고하다’에 속해 있고, ‘노련미가 있다’ 등으로 볼 수 있다. 대중성 부문에서는 ‘여성에게 인기가 있다’ 이고, 지적인 부문에서는 ‘똑똑하다’, ‘엘리트 이다’ 이며, 경륜 부문에서 ‘경험이 많다’로 미디어 선거전에서 보여 주었다.

노무현은 생김새 부문에서 ‘평범하게 생겼다’와 옷차림에서 ‘촌스럽다’로 보이며, 개성 부문에서 ‘패기 있다’와 ‘소박하다’ 등이며, 대중성 부문에서는 ‘젊은이에게 인기 있다’ 이다. 정치적으로 ‘임기응변이 강하다’와 경륜 부문에서는 ‘여러 번 실패했다’로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제 16대 대선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보여준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전체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이회창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세련되고 이지적이고 다소 보수적이므로 ‘귀족 형’ 또는 ‘명품 형’ 정치인으로 볼 수 있었고, 노무현 후보의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서민적이고 단순하고 소탈하며 친근감을 주는 ‘소박 형’ 또는 ‘시장 형’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두 후보간의 이미지 유형은 이회창 후보는 ‘귀족 형 정치인’ 이라 할 수 있고, 노무현 후보는 ‘소박 형 정치인’ 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 전략 차원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정치적 이미지 이고, 둘째는 개성적 이미지 이다. 출마한 인물의 지도자로서의 역량, 자질, 신뢰성, 쟁점 설정, 선거 쟁점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느끼는 간접적인 인상을 정치적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다. 후보자의 인상, 외모, 목소리 등은 개성적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다.

Carole Jackson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중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약 30% 정도 이라고 한다. 결국 나머지는 비언어 행위에 의존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부분은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제스처 라고 할 수 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는 외모, 표정, 시선, 자세, 손동작, 몸동작, 접촉, 공간 등 8가지가 주요한 요소이다.⁷⁰⁾

외모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잘 모를 때 일차적으로 겉모습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미지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옷차림 등의 외모를 통해 그 사람의 연령, 경제적 수준, 지위, 기호, 친밀도 등을 짐작하는 것이다. 외모는 그 사람의 공신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옷차림은 개인의 개성과 이미지를 보여주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비언어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유명한 의상 컨설턴트인 Dawn E. Waldrop은 사람들이 옷을 입는 스타일을 대체로 내추럴한 스타일, 클래식한 스타일, 낭만적인 스타일, 대담한 스타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⁷¹⁾

Pines은 옷에 대하여 ‘나인 것’과 ‘나 아닌 것’으로 구조화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련의 연구를 하였는데, 그림을 보여주고 어느 옷이 가장 나답고 어느 옷이 나답지 않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나답다’라는 스타일을 먼저 결정하고 ‘나 답지 않다’라는 스타일을 나중에 파악하였다. 그것은 ‘좋아하는데 ... 나는 아니야’ 라는 대답을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선거에서도 신체적으로 매력 있고 호감을 주는 인상을 가진 정치 후보자들에게 투표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⁷²⁾ 외모가 잘 생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어렵지 않게 도움을 받는다. 외모

70) Jackson, Carole., (1992), *Color Me Beautiful*, Acropolis Book, pp.77-79.

71) McCoy, Michelle., (2000), *Sound And Look Professional on TV the Interne*, Bonus Books, pp.114~116.

72) S. Chaiken., (1979), Communicator psychology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pp.1387~1397.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수긍하고 의견을 변화시키는 데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III.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와 유권자 수용태도에 대한 고찰

1. 국내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국내 유권자들은 정치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당의 이념과 후보자의 정견보다는 대중 매체로 전달되는 후보자의 성격, 용모 및 말씨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주장처럼 정치인의 이미지는 유권자의 선택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정치인의 이미지란 자신의 허상을 만들면서 유권자를 속인다는 의미보다는 정치인 이미지의 장단점을 알고 그것을 수정하면서 유권자에게 호감도와 정서의 친밀감을 주는 것이다.

고전적인 차원에서 정치인의 이미지 메이킹은 외모 중심의 코디네이션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의상과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패션스타일은 인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TV 뉴스 및 보도 프로그램 앵커들이 가장 선호하는 패션은 푸른 셔츠와 남색 정장, 그리고 붉은 색 계통의 줄무늬 타이이며, 워싱턴 정가에서는 붉은 색 타이를 맨 사람은 모두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옷차림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을 입기 보다는 무난한 옷차림을 선호하고 있는데, 암갈색이나 청회색, 취색 등의 양복이나 검정색 양복, 흰 와이셔츠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치인이 아직도 권위적이고 답답하고 진부한 것이 유권자들에게는 패션 감각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

피부색이 노란 한국인에게는 진한 의상의 양복이 깔끔하고 잘 어울리며, 연한 회색이나 갈색, 옅은 갈색은 개성적으로 보이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의상에 어떤 조명을 어떤 각도에서 비춰지느냐에 따라 인물에 대한 영상 이미지가 확 달라 질 수 있다.

정치 후보자는 유행을 지나치게 민감하기 보다는 다소 클래식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품위를 지키기에 안전하다. 지역 구민들과 너무 차이가 나는 옷은 피하며, 정치인의 옷차림은 방문하는 시간·장소·유권자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처신과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울 때는 보수적·전통적인 것이 무난하다.

정치 후보자의 헤어스타일 표현은 머리 각 부분의 형태와 색상의 조화뿐만 아니라 머리 모양, 의상, 장소,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각각 어울리는 스타일로 조화를 이루어 여성의 아름다운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자신감 있는 자신의 외적 표현이다. 헤어스타일은 여성 정치인의 외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유권자에게 개성표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클래식하고 정돈된 분위기의 헤어스타일은 여성 정치인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고급스럽고 우아하며 기품 있는 분위기로 전체적인 조화와 정돈된 스타일이 신뢰감을 준다.

TV 화면에서 메이크업은 일반적으로 얼굴을 멋있고 매력적으로 재현해주며, 얼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얼굴에 흉터나 기미, 반점 등을 감추어 주거나 보완해주며, 적절한 피부색을 표현하여 생기 있게 보이는 것은 메이크업의 필수요인이다. 생기 있고 활달한 이미지 메이크업은 후보자를 젊어 보이게 하고 강한 인상의 소유자는 부드럽게 완화되기도 한다.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동반해야 된다는 점이다. 평소 후보자의 장단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TV 전용 메이크업을 의뢰할 시 후보자 자신의 피부색이 TV 영상을 통하여 최고의 이미지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TV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조명이 강하므로 후보자의 얼굴보다 피부색을

조금 어둡게 조절하여 좀더 건강하게 또렷하게 보이도록 피부 톤을 조절한다.

얼굴에 윤기가 나면 화면에서는 지지분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므로 파우더를 바르되 피부색과 가장 근접한 최소한의 양으로 번들거림과 얼룩짐이 없어 섬세하게 바르는 것이 올바르다.

또한 눈썹의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므로 양쪽이 균형성 있게 맞추고 눈썹 결대로 빗어주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입술에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입술에 건강미를 주는 연한 갈색이나 오렌지 계열의 갈색으로 세심하게 발라준다.

1) 국내 여성 정치인의 현황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은 17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전체 의원 총수는 4,104명이며, 그 중 여성 국회의원은 134명으로 여성 의원 비율은 3.2%이다. 특히 17대 국회의 경우 전체 299명으로 국회의원 중 13%, 총 39명이며 여성 정치인으로, 지금까지 여성 정계 진출 사에서 분수령을 이를 만큼 국회 대비 그 수가 많은 편이다.(표 11)

국제의회연맹(IPU)의 2003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원은 스웨덴 45.3% 덴마크 38% 핀란드 35.6%이며 아시아권에서도 베트남 27.3% 중국 21.3% 파키스탄 21.1% 필리핀 17.8% 등으로 한국보다 크게 앞서 있다.

<표 11> 역대 여성 국회의원

(단위 : 명, %)

국회 대	총 의원 수	총 여성 의원 수	직선 여성의원 수	전국구 여성의원 수
1대(1948)	200	1	1	0
2대(1950)	210	2	2	0
3대(1954)	203	1	1	0
4대(1958)	233	3	3	0
5대(1960)	233	1	1	0
6대(1963)	175	2	1	1
7대(1967)	175	3	1	2
8대(1971)	204	5	0	5
9대(1973)	219	12	2	10
10대(1978)	231	8	1	7
11대(1981)	276	9	1	8
12대(1985)	276	8	2	6
13대(1988)	299	6	0	6
14대(1992)	299	8	1	7
15대(1996)	299	10	3	7
16대(2000)	273	16	5	11
17대(2004)	299	39	10	29
합계	4104	134	35	98

17대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원 정수 299명 가운데 39명(13%)이 선출, 15대 총선에서는 9명(3.01!)에 그쳤으며 16대에는 16명(5.85%)이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와 전대변인 전여옥을 비롯한 15명, 열린 우리당 대변인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17명, 그리고 민노당이 4명, 민주당 2명이다.

<표 12> 2004년 여성 정치인의 현황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민노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기타
박영선 의원	박근혜 대표	이영순 의원	손봉숙 의원	강금실 전 장관
강혜숙 의원	박찬숙 의원	최순영 의원	이승희 의원	추미애 전 의원
홍미영 의원	전여옥 의원	심상정 의원		
김영주 의원	나경원 의원	현애자 의원		
김명자 의원	김영선 의원			
강혜숙 의원	전재희 의원			
이미경 의원	이혜훈 의원			
한명숙 의원	김희정 의원			
조배숙 의원	송영선 의원			
김선미 의원	김영숙 의원			
장향숙 의원	고경화 의원			
이경숙 의원	진수희 의원			
김현미 의원	안명옥 의원			
이은영 의원	박순자 의원			
윤원호 의원	이계경 의원			
유승희 의원				
장복심 의원				

2) 국내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유형 분석

17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총 39명의 여성의원들이 파격적인 옷차림의 의원들이 속속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정장으로 상징되던 의원들의 복장은 가히 '패션 파괴'라 부를 만한 정도로 파격적 이었다. 무채색 일색이었던 옷 색깔이 연보라색은 물론 빨강색, 진홍색, 하늘

색 등 총 천연색으로 바뀌어 패션쇼장을 방불케 했다. 국회의원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은 국회법에는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 여성의원들이 ‘튀면 왕따 된다.’며 최대한 무난하게 보이려 한 것과는 달리, 17대 국회부터 소수인 여성 의원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확실히 알리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것은 비단 패션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에서 여성 정치인의 표현수단으로 자신의 매력성과 여성스러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헤어에서도 클래식한 스타일의 단정한 느낌의 스트레이트 헤어와 성숙하고 고급스럽게 인지되는 로맨틱한 느낌의 컬이 들어간 중간머리 길이와 짧은 머리길이 등이 보여 진다.

국내 여성 정치인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추미애 의원은 내추럴 이미지를 연출하고 박근혜 의원은 클래식 이미지와 로맨틱 이미지가 같이 보여 지며 강금실 전 장관은 드라마틱 이미지 등으로 구분, 출처는 17대 국회 개원식을 중심으로 살펴봐서 분류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3>와 같다.

<표 13> 국내 여성 정치인의 Fashion Look 유형 분석

정치인 이미지	여성 정치인	개인별 특징 (패션, 메이크업, 헤어 등)
내추럴 이미지	추미애	- 자연스러운 파스텔톤 색상의 치마정장패션 - 자연스러운 스트레이트 단발 머리스타일 - 얇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클래식 이미지	박근혜	- 중간색조의 치마정장 패션 - 작고 튀지 않는 액세서리 착용 - 우아한 올림머리 스타일
로맨틱 이미지	박근혜	- 파스텔 톤의 치마정장 - 우아한 올림머리
드라마틱 이미지	강금실	- 흐르는 실루엣의 통바지 스타일 - 금실과 반짝이는 소재 - 어깨를 휘감은 솔을 착용 - 레드립스틱과 하늘색의 아이섀도로 강렬한 메이크업 - 짧은 머리 스타일
	홍미영	-생활한복
	박찬숙	-선그라스 머리띠

외모 이미지의 세부 요소 중 먼저 패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동안 어두운 색상의 옷을 고집하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이날만은 화사한 연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나왔다.⁷³⁾ 열린 우리당 의원이 챙 넓은 모자를 쓰고 등원해 화제가 됐으며,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는 파격을 시도했고, 열린 우

73) 한국일보, 2004/6/7일자 신문기사.

리당 홍미영 의원은 5일과 7일 연이어 입은 생활 한복은 벌써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2. 유권자의 수용 모델과 투표분석 모델

1) 외모 이미지 수용 모델

정치인 외모에 관해 유권자가 실제로 만족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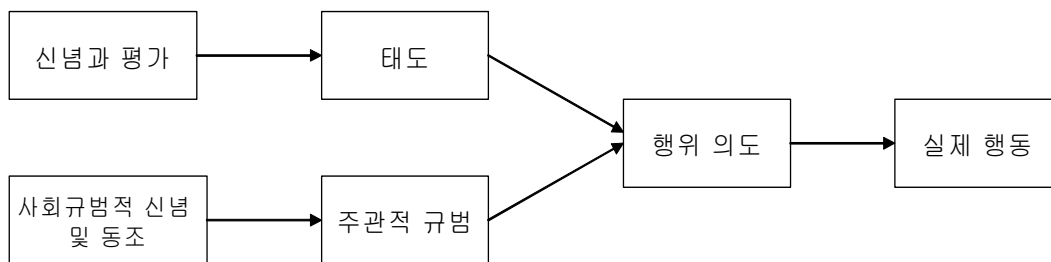
기존에 연구되었던 제반 수용모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실제 선택을 하게 되는 수용모형인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계획적 행동이론(TBA: Theory of Planned Behavior), 그리고 기술 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등이 대표적이다.

(1) 합리적 행위이론(TRM: 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적 행위이론⁷⁴⁾에서는 다음 <그림 77>과 같이 신념(belief), 태도(attitude), 의도(intention), 행동(behavior)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간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이란 개인의 실제 행동은 행위 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의해서 결정되며, 행위 의도는 개인이 가지는 태도(attitude)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74) M. Fishbein, (1985),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J.F. Addxon-Wesley, p.175.

합리적 행위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주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행위의 결과와 의미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로 인하여 합리적 행위이론이 비이성적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행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하게 의도된 행위에 대한 결정이론으로 폭넓게 연구되었다.



<그림 77> 합리적 행위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출처 : M. Fishbein,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1985)

행위 의도는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려는 개인이 가지는 의도의 강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행위에 영향을 주는 동기유발 요인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행위에 대한 태도는 목표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생각이나 느낌으로서,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형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위에 대한 태도는 전체 결과에 대한 선호의 정도로 표현되며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특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개인적 신념의 강도에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치가 가중되어 결정된다.

신념은 개인의 주관적 목표가 되는 행위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개인의

기대치를, 그리고 평가는 결과에 대한 암시적인 평가 응답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이론에서는 개인 태도의 형성과 변화는 개인이 지니는 내부적 신념 구조와 외부의 영향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이 갖는 주관적 규범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지된 사회적 압력 즉, 자신과 친하면서 자신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용납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지각하는 인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규범적 신념, 특별한 개인이나 집단과 관련하여 인지된 기대치, 그리고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부여가 결합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75)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주목할 내용은 정보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이 사용자가 가지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되나, 사용자의 태도는 개인적 차원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주관적 규범은 조직 문화와 같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합리적 행위이론을 실제 수용 행위에 대한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리적 행위이론을 이용한 연구들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피 실험자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신념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 계획적 행위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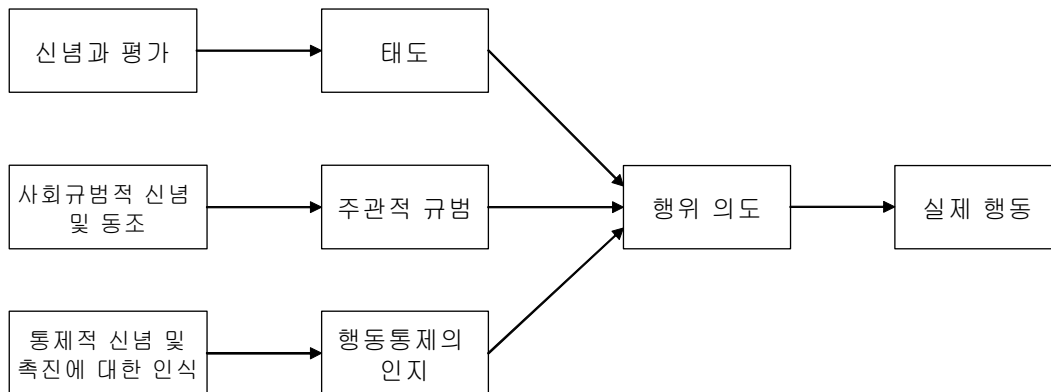
합리적 행위이론에서는 개인의 행위가 완전한 자신의 의지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으면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적절한 기회나 자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획적 행위이론⁷⁶⁾은 행위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self-confidence)이 행위 예

75) M. Fishbein, (1985), op.cit, p.178.

측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됨에 따라 합리적 행위이론으로부터 발전된 이론으로서, 합리적 행위이론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로 행위 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합리적 행위이론 모형과는 달리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의도의 요인으로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외에 인지된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를 포함하고 있다. 계획적 행위이론은 불완전한 자발적 통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이론 보다는 적용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8> 계획적 행위이론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출처 : I. Ajzen., T. Madden,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1986).

인지된 행위 통제는 필요한 자원, 기회, 숙련도 등의 과다 여부와 같이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용이성 정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 행위이론에서는 행위를 수용하는 것의 용이성과 난이성을

76) I. Ajzen., & T. Madden.,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 Intens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p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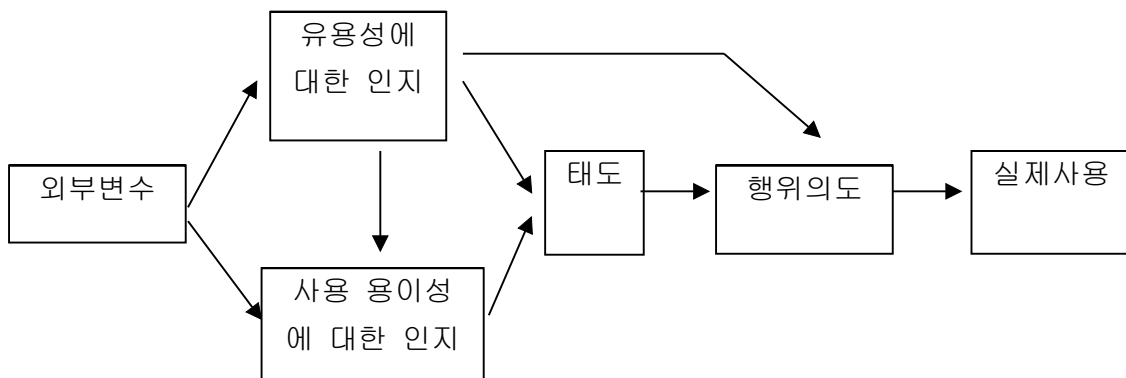
고려해서 결과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계획적 행위이론은 행위 수행으로 인한 성과는 능력으로서 행동 통제와 동기 유발로서 행위 의도에 모두 의존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 행위에 대한 설명 영역을 의지에 따른 행위뿐만 아니라 의지의 통제 하에 있지 못한 행위 영역으로 동기적요인 뿐만 아니라 비동기적 요인도 고려하고 있다.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각각 행위 신념과 규범적 신념을 선행 요인으로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된 행위 통제는 통제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인지된 행위 통제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쉽게 해주는 능력, 지식 그리고 기회 등의 용이성, 그리고 행위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한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지된 행위 통제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주어진 이용 가능성 또는 가용성에 대한 개념인 통제 신념과 그러한 기회와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측정하는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facilitation)으로 나타내진다.

(3) 기술 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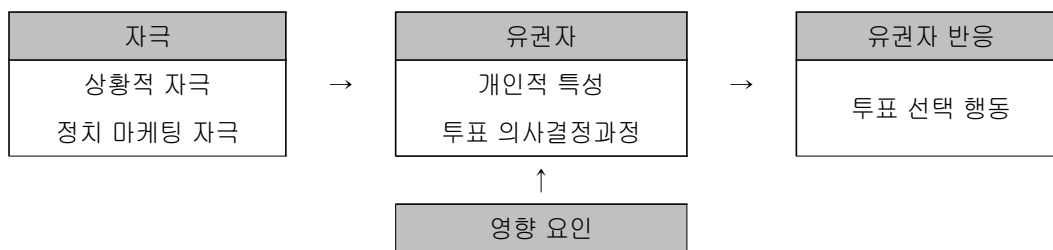
<그림 79>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출처 : F. Davis., R. Bagozzi and Warshaw,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1989)

기술수용모형⁷⁷⁾은 사용자가 신기술을 받아들일 때 그 기술이 자신의 업무 또한 필요에 효용이 있다고 느끼는 유용성과 그 기술을 새로 사용하는데 배우는 과정에 노력이 들지 않는다는 사용 용이성으로 구성된다. 본 모델은 단순하지만 정보통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조직에 도입할 때 사용자 태도를 분석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2) 유권자 투표행동 분석 모델

유권자의 투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분석 구조는 S-O-R 모델인데, <그림 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극과 영향 요인이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투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투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림 80> 유권자 행동 분석 모델

(출처 : 이순이, 한국 국민의 투표 행태와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988),

일반적인 설명 모델은 관찰된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지적인 관심 이외에 보충된 설명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처리하기만 하면 관심을 두고 있는 행동을 설명, 이해 및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주요 설명 변수 중 몇 개를 조작함으로써 설명 모델들은 그 행동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관한 기존의 대표적인 모델을 보면 다음과 같다.

77) F. Davis., R. Bagozzi and Warshaw., (1989),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35 (8). p.57.

(1) Sheth와 Newman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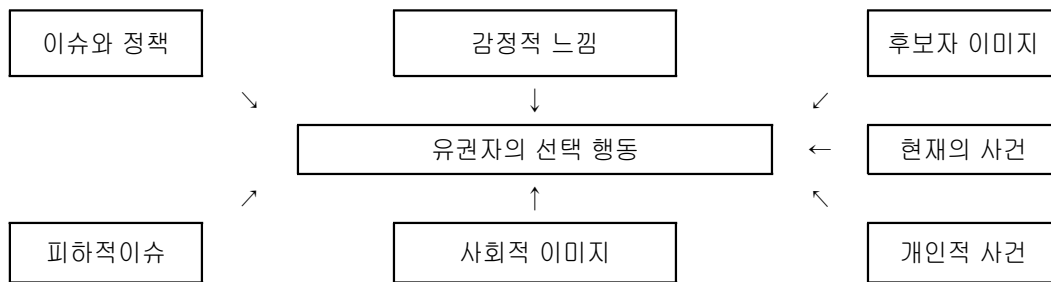
Sheth & Newman⁷⁸⁾은 유권자들이 투표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권자, 구전 의사 유통(word-of-mouth communication) 및 대중 매체 등의 다양한 원천에 기인하는 인지적 믿음을 개발하여 유권자 투표 행동 분석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Sheth에 의해 제안된 일반적인 개인 선택 행동 모델을 근거하는 것으로 핵심은 유권자들의 선택 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이슈와 정책, 감정적 느낌, 후보자 이미지, 피하적 이슈, 사회적 이미지, 개인적 사건 그리고 현재의 사건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슈와 정책은 경제, 외교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말하며, 감정적 느낌은 투표에 있어서 후보자에 의해 제기되는 희망, 책임감, 애국심과 같은 정서적인 느낌을 말한다. 또한 후보자의 이미지는 후보자의 경력이나 지적 능력처럼 후보자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근거한 이미지를 말하며, 후보자와 그의 정당, 정책에 대한 친밀감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피하적 이슈는 후보자에 의해 제공된 호기심, 지식 탐색 욕구에 대한 지각적 만족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이유를 말하며, 사회적 이미지는 후보자가 속한 인구 통계학적, 사회 경제적, 문화 도덕적, 정치 사상적 계층과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긍정 또는 부정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모델은 유권자 선택 행동에 미치는 여러 독립변수들의 상호 작용을 무시 하였다.

78) I. Newman, Bruce., & N. Jagdish Sheth.,(1985), A model of Primary vot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5, Sep, pp.178~187.



<그림 81> Sheth와 Newman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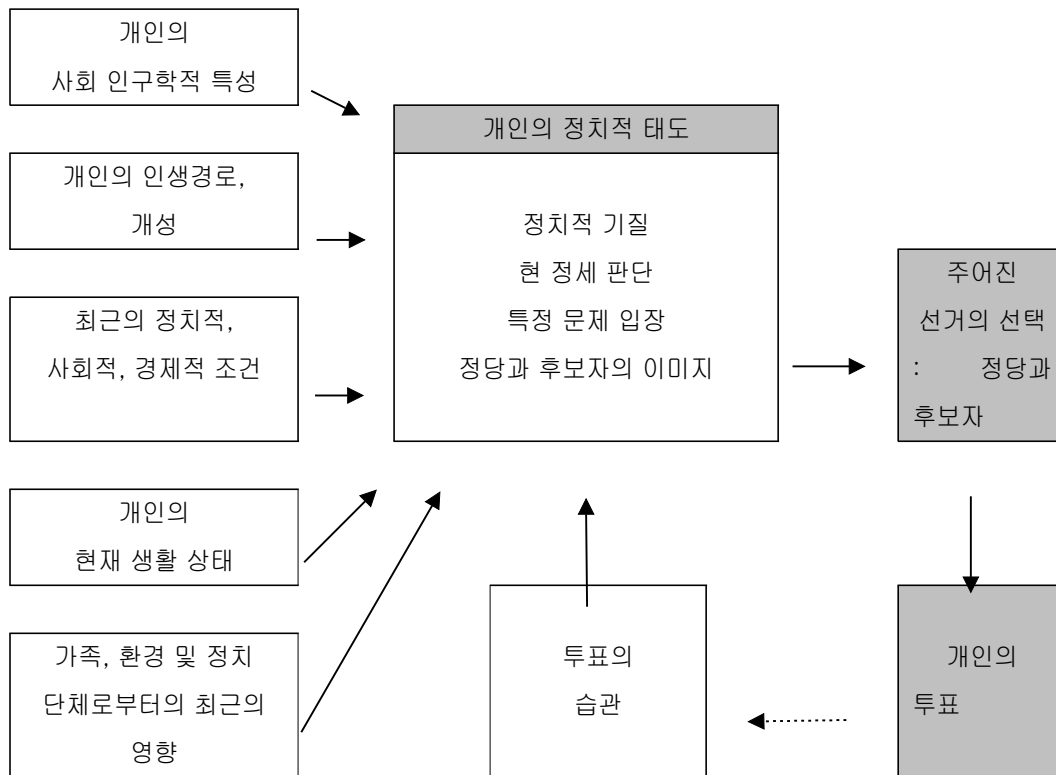
(출처 : Sheth & Newman, A model of Primary vot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45. Sep, 1985)

2) Lindon의 모델

Lindon⁷⁹⁾은 한 개인의 투표는 그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그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선택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파악하여 유권자가 투표의사 결정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또한 그 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을 엄격하여 기술해 주는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상에 가까운 모델은 소비자 행동 모델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권자 행동 분석에는 아직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79) R. Lindon, (1973), Introduction to Positive Political Theory. New Jersey: Prentice-Hall,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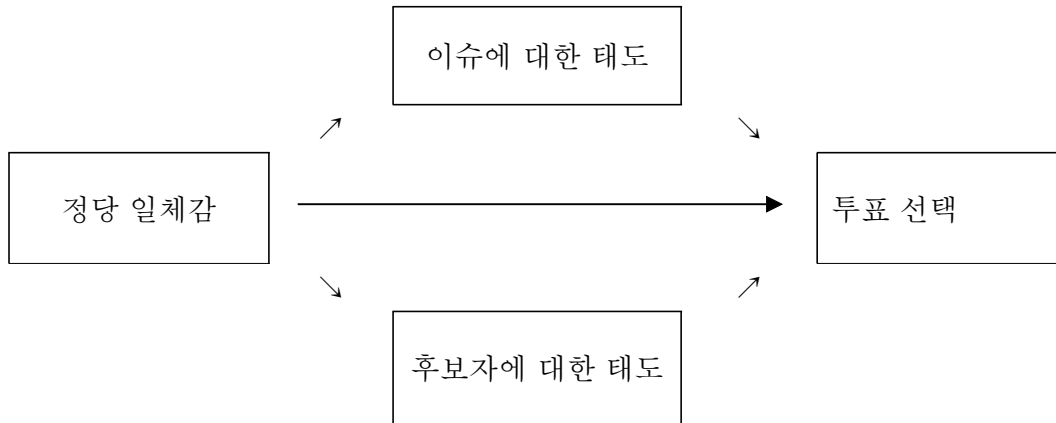
<그림 82> Lindon 모델\

(출처 : R. Lindon, Introduction to Positive Political Theory. New Jersey: Prentice-Hall, 1973).

3) Campbell의 모델

Lindon 모델은 1970년대 초까지 유권자 행동을 이해하는 지배적인 모델이었는데, Campbell⁸⁰⁾은 여기서 정당 일체감, 이슈에 대한 태도 및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80) A. Campbell, (1960), The American Vote, John Wiley, p.126.



<그림 83> Campbell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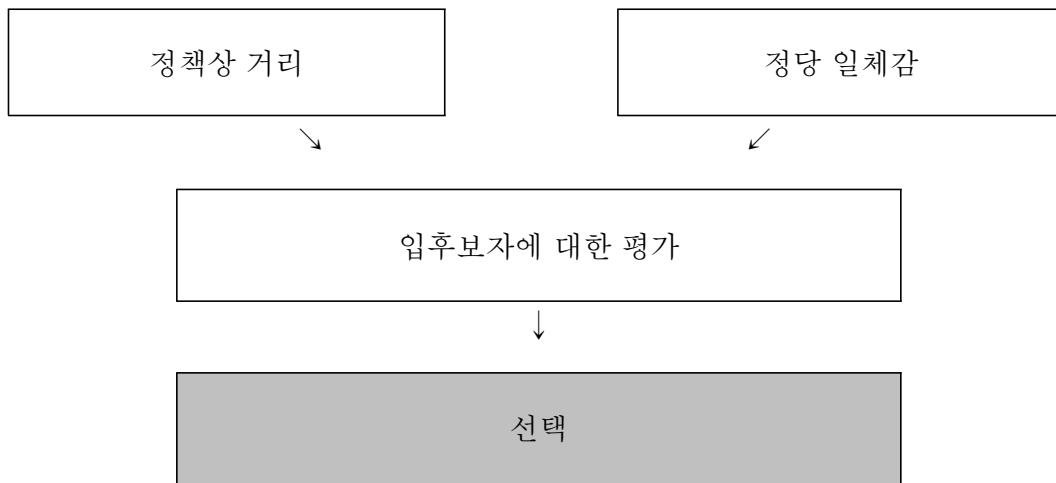
(출처 : A. Campbell, The American Vote, John Wiley. 1960)

<그림 83>과 같이, 정당 일체감은 유권자의 장기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 직접적 영향 요인이 이슈 및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구성요소의 개념화와 측정에 문제가 있으며,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 관계,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 여부 및 방법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4) Page와 Jones의 모델

Page와 Jones의 모델⁸¹⁾은 Campbell의 일방적 인과 모델의 타당성을 반박하면서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일체감, 정책상의 거리 및 입후보자에 대한 평가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조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자료 분석을 위한 측정 자료의 개념상의 모델이다.



<그림 84> Page와 Jones의 모델

(출처 : 이순이, 한국 국민의 투표 행태와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988),

81) 이순이, (1988), 한국 국민의 투표 행태와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 행정대학원,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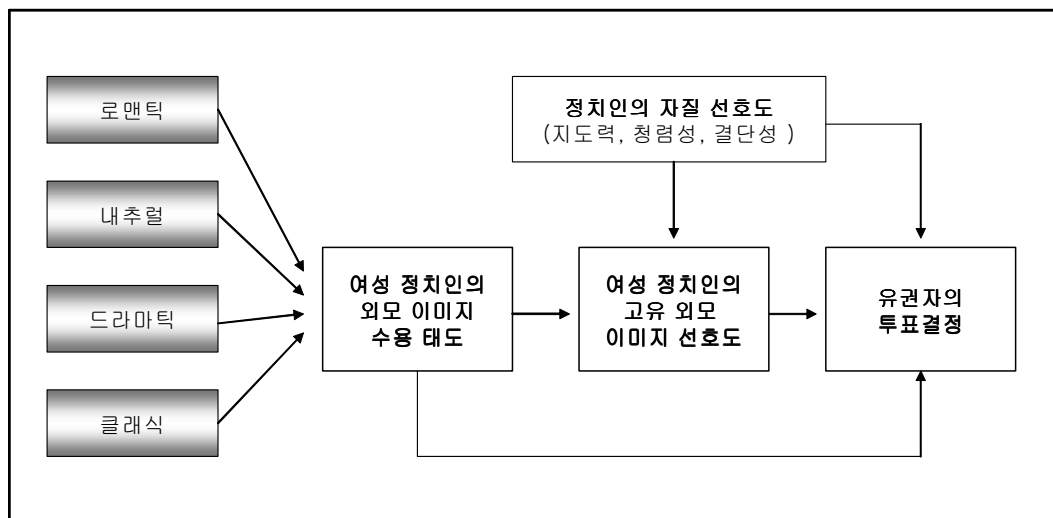
IV. 패션 룩 유형에 따른 여성정치인 외모이미지 연구

1. 연구 모델 및 연구문제 설정

1) PAAM 모델

이상의 연구문제들을 모형화 한 본 모델은 여성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수용 연구 모델(Politician Appearance Acceptance Model; PAAM)이라 칭하기로 한다.

PAAM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모 이미지인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인 로맨틱, 내추럴, 드라마틱, 클래식 유형은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준다. 여성 정치인 자질과 외모이미지 수용태도는 동시에 여성정치인의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 투표결정에 있어 외모이미지 선호도와 정치인의 자질은 함께 영향을 미친다.



<그림 85> 여성 정치인 외모이미지 수용 연구 모델

이러한 4가지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이 유권자의 외모이미지 수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스타일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1-1. 패션 스타일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1-2. 헤어 스타일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1-3. 메이크업 스타일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1-4. 색 스타일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패션 룩 유형이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2-1. 패션 룩 유형이 여성정치인의 고유 이미지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가?
- 2-2. 패션 룩 유형은 여성정치인의 외모에 의한 정치적 위상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가?
- 2-3. 패션 룩 유형은 여성 정치인 외모이미지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2-4. 패션 룩 유형은 여성 정치인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수용태도와 정치적 자질 선호도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3-1.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는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3-2. 여성 정치인의 정치적 자질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연령과 패션 룩 유형이 특정 여성 정치인을 지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4-1. 유권자 연령과 패션 룩 유형은 여성 정치인 박근혜를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 4-2. 유권자 연령과 패션 룩 유형은 여성 정치인 강금실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 4-3. 유권자 연령과 패션 룩 유형은 여성 정치인 추미애를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 4-4. 유권자 연령과 패션 룩 유형은 여성 정치인 박영선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가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5-1.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는 외모 기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5-2.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는 정치인의 자질기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 표본의 특징

연구대상자 즉, 조사 표본의 특징은 가설 설정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피험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남녀를 연령, 학력, 거주지, 직업을 고려하여 편의 표집 하였으며, 표본은 총 706명이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변인의 분포는 <표 14>와 같으며, <표 15>와 <표 16>은 성별을 분리한 인구 통계적 변인의 분포이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77명(39.9%), 여자 417명(60.1%)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20대가 341명(48.6%), 30대가 183명(26.1%), 40대가 116명(16.5%), 50대 이상이 62명(8.8%)으로 2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종학력에 있어서는 고졸 미만이 31명(4.5%), 고졸 학력이 117명(16.9%), 대학 재학 중이 237명(34.2%), 대졸 학력 소지자가 258명(37.3%),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49명으로 7.1%를 차지했다.

연구대상자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지역은 256명으로 36.3%를 차지했고, 경기 지역은 88명으로 12.5%를 차지했으며, 경상도 지역은 203명으로 28.8%에 달했다. 전라도 지역은 87명으로 12.3%를 차지했고, 충청도 지역은 69명으로 9.8%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강원 지역 응답자가 2명이었다.

직업은 2001년 12월에 리서치 앤 리서치⁸²⁾에서 조사한 선거 표본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총 9가지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표 16>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녀별로 구분한 표를 살펴보면 대학 재학 중인 여자가 164명이고 남자가 72명으로 여성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82) (주) Reach & Reach에서 직업구분은 농업, 임업, 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로 구분한다.

<표 14>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N=706)

통계량		빈도	백분율(%)	통계량		빈도	백분율(%)	
구분				구분				
성별	남자	277	39.9	학력	고졸미만	31	4.5	
	여자	417	60.1		고졸	117	16.9	
	무응답	12			대학 재학	237	34.2	
	계	706	100.0		대졸	258	37.3	
연령	20대	341	48.6		대학원 이상	49	7.1	
	30대	183	26.1		무응답	14		
	40대	116	16.5		계	706	100.0	
	50대 이상	62	8.8		직업	공무원	40	5.7
	무응답	4				회사원	186	26.6
	계	706	100.0			자영업	38	5.4
지역	서울	256	36.3	학생		216	30.9	
	경기	88	12.5	무직		11	1.6	
	경상지역	203	28.8	전문직		57	8.1	
	전라지역	87	12.3	주부		69	9.8	
	충청지역	69	9.8	교직원		41	5.8	
	강원	2	0.0	기타		40	5.7	
	무응답	1		무응답		8		
	계	706	100.0	계	706	100.0		

<표 15>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자)

(N=277)

통계량		빈도	백분율(%)	통계량		빈도	백분율(%)
구분				구분			
연령	20대	95	34.3	학력	고졸미만	13	4.7
	30대	95	34.3		고졸	42	15.2
	40대	55	19.9		대학 재학	72	26.1
	50대이상	32	11.6		대졸	120	43.5
	무응답	0			대학원이상	29	10.5
	계	277	100.0		무응답	1	
직업	공무원	20	7.2		계	277	100.0
	회사원	103	37.3	지역	서울	115	41.5
	자영업	24	8.7		경기	37	13.4
	학생	66	23.9		경상지역	83	29.9
	무직	6	2.2		전라지역	22	7.9
	전문직	26	9.4		충청지역	19	6.9
	주부	2	0.7		강원	1	0.4
	교직원	14	5.1		제주	0	0
	기타	15	5.4		기타	0	0
	무응답	1			무응답	0	
	계	277	100.0		계	277	100.0

<표 16> 인구통계학적 특성 (여자)

(N=417)

통계량		빈도	백분율(%)	통계량		빈도	백분율(%)
구분				구분			
연령	20대	246	59.4	학력	고졸미만	17	4.2
	30대	85	20.5		고졸	70	17.2
	40대	55	13.3		대학 재학	164	40.3
	50대이상	28	6.8		대졸	136	33.4
	무응답	3			대학원이상	20	4.9
	계	417	100.0		무응답	10	
직업	공무원	18	4.4	지역	서울	141	33.8
	회사원	83	20.2		경기	51	12.2
	자영업	12	2.9		경상지역	109	26.3
	학생	150	36.5		전라지역	65	15.6
	무직	4	1.0		충청지역	50	12.0
	전문직	31	7.5		강원	1	0.2
	주부	61	14.8	제주	0	0	
	교직원	27	6.6	기타	0	0	
	기타	25	6.1	무응답	0		
	무응답	6		계	417	100.0	
	계	417	100.0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 외모이미지는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의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은 4가지 요소 즉 로맨틱, 내추럴, 드라마틱, 클래식 등으로 정의되었다. 먼저 이들 요소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외모이미지 수용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울러 지도력, 청렴성, 결단성으로 구성된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와 함께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가 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흐름으로 설문을 구성하였고, 새롭게 정의된 변수를 만들었다.

외모이미지 중에서 메이크업에 관한 항목으로는 밝고 부드러운 메이크업, 여러 색으로 배합한 메이크업, 한 두가지 색으로 한 메이크업, 고상하고 차분한 메이크업 4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서 응답자가 선호하는 정도를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헤어스타일에 대한 항목으로는 소프트하고 흐르는 듯한 웨이브 긴 머리, 대담한 컷과 강한 웨이브로 혁신적인 머리, 스트레이트 생머리나 자연스러운 헤어, 잘 정돈된 단발머리와 깔끔하게 올린 헤어의 4가지 스타일을 제시하여 여성정치인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마찬가지로 7점 척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도록 했다. 세 번째 패션 스타일도 다음 4가지 대표적인 스타일을 제시하여 선호도를 파악했다. 먼저 로맨틱한 이미지로는 여성적이고 낭만적인 은은한 물방울이나 꽃무늬 패션스타일을 제시했고, 드라마틱한 이미지로는 유행에 앞서고 자신의 특유한 추상적이고 대담한 침단소재, 무늬, 디자인 스타일을 제시하였으며, 그 다음은 내추럴한 이미지에 어울리게 무난한 디자인, 체크나 동식물 모양의 편안한 연출 스타일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클래식한 이미지로는 품격 있고 우아한 단색의 줄무늬 패션스타일을 제시하여 응답자의 선호도를 파악했다. 색 스타일에 관해서는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상, 강렬하고 화려한 색상, 편안한 자연 색상, 중간 톤의 고상한 색상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조사했다. 패션스타일을 통해 예를 든 것처럼 각각의 외모이미지에는 4가지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의 전형적인 형태가 포함되어 있고, 각 응답자별로 각 외모이미지의 선호 정도를 통해 동시에 어떠한 패션 룩 유형을 선호하는 지도 파악할 수 있게끔 설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확

한 요인의 추출을 위하여 각 외모이미지에 포함되는 패션 룩(Fashion Look) 유형의 제시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하여 설문순서에 따른 경향성을 배제하려 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 문항을 설문하였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정치인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반응과, 두 번째로 여성정치인 개인의 고유한 외모이미지가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정도에 대한 반응과, 앞으로 여성정치인은 외모이미지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판단을 마찬가지로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반응변수, 외모 이미지 태도를 얻기 위해서 “여성정치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가진다”, “여성 정치인 개인의 고유 외모이미지는 정치적 위상이 올라 간다”, “여성정치인은 외모이미지에 신경을 써야한다” 라는 세 가지 설문문항의 입력치를 더하여 얻은 값이다.

이번에는 여성뿐만이 아닌 정치인 일반에 대한 자질에 대한 질문으로 지도력 있는 정치인, 청렴성 있는 정치인, 결단성 있는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를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다시 여성정치인에 초점을 맞추어 고유한 외모이미지를 가지는 여성정치인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여성정치인의 외모이미지에 대한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앞서 제시한 여성정치인의 외모수용태도가 응답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의미에서 여성정치인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이미지가 필요하며, 이것이 정치적 위상에 기여하며, 그 결과 외모이미지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질문이라면,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를 묻는 질문은 실제로 개인이 판단을 할 때 외모이미지도 하나의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특성으로 두 가지 질문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정치인의 외모이미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판단에 기초하여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정치인 중에서 외모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총 16명의 여성정치인이 예시에 포함되었으며, 설문방식은 다중응답방식(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정치인에 모두 표시)을 이용하여 지지도의 편중성을 막고, 단순한 정치적 색채나 지역적 이유에서 나온 여성 정치인이 아닌 외모 이미지가 좋다는 기준에서 나온 다양한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앞으로의 선거 투표 결정에 있어서 여성정치인에게서 받은 외모이미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는 외모이미지가 좋은 여성정치인에게 투표 한다” 는 질문을 설문에 포함시켰고, 아울러 여성 정치인의 정치적 자질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도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설문 및 측정 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설문 항목 요약

구분	설문 항목	No.
메이크업(화장) 스타일 (4항목)	밝고 부드러운 메이크업	문1-1
	여러 색으로 배합한 메이크업	문1-2
	한 두가지 색으로 한 메이크업	문1-3
	고상하고 차분한 메이크업	문1-4
헤어 스타일 (4항목)	웨이브 긴 머리	문2-1
	혁신적인 헤어	문2-2
	생머리/자연스러운 헤어	문2-3
	단발/깔끔하게 올린 머리	문2-4
패션 스타일	낭만적인/꽃무늬 패션	문3-1
	유행에 앞서 패션	문3-2

(4항목)	편안한 패션 폼격/우아한 패션	문3-3 문3-4
색 스타일 (4항목)	파스텔톤/부드러운칼라 강렬하고 화려한 색상 편안한 자연색상 중간 톤의 고상한 색상	문4-1 문4-2 문4-3 문4-4
여성정치인 외모수용태도 (3항목)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 가짐 외모이미지와 정치적 위상 외모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문5-1 문5-2 문5-3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 (3항목)	지도력 청렴성 결단성	문6-1 문6-2 문6-3
여성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선호도 (1항목)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가지는 여성정치인 선호	문7-1
선호하는 정치인 (1항목)	강금실 강혜숙 강혜원 김명자 김영주 나경원 박근혜 박영선 박찬숙 손봉숙 이영순 전여옥 추미애 최순영 홍미용	문 8-1
여성정치인에 대한 투 표결정 (1항목)	외모이미지와 투표 정치적 자질과 투표	문 9-1 문 9-2
인구통계학적 항목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 지역	배문1 배문2 배문3 배문4 배문5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에 대한 외모적인 이미지를 여성 정치인과 조화에 대한 고유 외모 이미지 선호도를 통해 패션 룩 유형 요인을 분석했다. <표 18>을 참고하면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은 주성분 추출 방법을 이용하였고, 요인 간에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Varimax방법을 통해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타당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 값이 1이 넘는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4개의 요인을 통해 전체 분산에서 약 52%를 설명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설문 작성 시 네 가지의 외모이미지별로 4가지의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을 염두에 두고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클래식의 패션 룩 유형은 중간색으로 고상하고 차분하게 정돈된 메이크업에 잘 정돈된 단발머리와 깔끔하게 올린 헤어, 품격 있고 우아한 단색의 줄무늬 패션 스타일, 중간 톤의 고상한 색상으로 분산시켜 배치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결과를 보임으로 설문 문항의 구성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다. 각 요인 항목에 대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8> 여성정치인에게 어울리는 외모이미지의 요인 분석

요인명	외모이미지 영향적도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Cronbach's & alpha
클 래 식	품격있고 우아한 단색의 줄무늬 패션스타일	0.749	3.48	21.75	0.7239
	중간색으로 고상하고 차분하게 정돈된 메이크업	0.714			
	잘 정돈된 단발머리와 깔끔하게 올린 헤어	0.696			
	중간 톤의 고상한 색	0.661			
로 맨	여성적이고 낭만적인 은은한 물방울이나 꽃무늬	0.733	2.462	15.39	0.6251

틱	패션스타일				
	소프트하고 흐르는 듯한 웨이브 긴 머리	0.663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색	0.602			
	밝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메이크업	0.585			
드라마틱	유행에 앞서고 자신의 특유한 추상적이고 대담한 침단소재, 무늬, 디자인 스타일	0.752	1.368	8.55	0.6481
	대담한 컷과 강한 웨이브로 혁신적인 헤어	0.711			
	강렬하고 화려한 색	0.710			
	여러가지 색으로 배합하여 눈에 띄게 하는 메이크업	0.564			
내추럴	한 두가지 색으로 한듯 안한 듯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0.657	1.008	6.30	0.5363
	무난한 디자인, 체크나 동식물 모양의 편안한 연출 스타일	0.642			
	편안한 자연에서 보여지는 색	0.598			
	잘 정돈된 단발머리와 깔끔하게 올린 헤어	0.384			

본고에서 앞서 제시한 내추럴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내추럴 이미지는 자연스럽고 자유로우며, 부드럽고 친근감이 있는 것이어서 가족(family) 감각에 잘 어울린다. 내추럴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은 베이지, 아이보리 등 주황계열의 칼라를 중심으로 한 소박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컬러가 주조색이 되며, 그린의

조화로 자연의 느낌을 더해 준다. 그리고 설문문항에서 같은 요인으로 묶인 한 두가지 색으로 한듯 안 한듯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무난한 디자인, 체크나 동식물 모양의 편안한 연출 스타일, 편안한 자연에서 보여지는 색상, 잘 정돈된 단발머리와 깔끔하게 올린 헤어를 내추럴한 이미지와 상통하는 외모이미지로 보고 내추럴 이미지로 요인을 명명했다. 내추럴한 이미지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0.5363을 얻을 수 있었다. 클래식, 로맨틱, 드라마틱, 내추럴한 이미지 중에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차지하는 제 1 요인은 클래식 이미지였고, 전체 변동 중에서 21.8%를 설명하였고, 그 다음은 로맨틱 이미지로 15.4%를 차지하고, 드라마틱 이미지와 내추럴 이미지가 각각 8.6%, 6.3%를 차지했다.

4. 변수별 특성 및 기초통계량

응답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4가지 외모이미지,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에 대한 각각의 질문에 7점 척도의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외모이미지에 대해서 4가지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이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이미지에 대해 다르게 응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대별, 거주 지역별로 그룹화를 하여 해당 그룹 내 평균을 제시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그리고 4가지 외모 이미지에 해당하는 질문의 합계를 이용하여 각 외모 이미지에 해당하는 변량으로 삼고, 기초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성별에 따른 외모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녀 모두 메이크업과 색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는 헤어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외모 이미지의 설문문항 응답치의 평균

구분	설문 항목	성별		연령별				지역	
		남	녀	20대	30대	40대	50대	수도권	지방
메이크업	밝고 부드러운 메이크업(로)	4.65	4.87	4.79	4.80	4.77	4.95	4.78	4.83
	여러색/눈에 띄는 메이크업(드)	2.86	2.52	2.44	2.61	3.00	3.51	2.71	2.62
	한 두색으로 한 메이크업(내)	5.08	5.04	5.13	5.14	4.89	4.52	5.13	4.95
	고상/차분한 메이크업(클)	5.28	5.42	5.35	5.35	5.38	5.39	5.37	5.35
헤어	웨이브 긴 머리(로)	3.81	3.19	3.51	3.27	3.45	3.79	3.44	3.50
	혁신적인 헤어(드)	3.48	3.66	3.70	3.62	3.18	3.65	3.58	3.61
	생머리/자연스러운 헤어(내)	4.25	4.00	4.06	4.02	4.46	4.11	4.17	4.05
	단발/깔끔하게 올린 머리(클)	5.34	5.47	5.44	5.37	5.41	5.19	5.36	5.42
패션	낭만적인/꽃무늬 패션(로)	3.61	3.53	3.40	3.61	4.16	3.70	3.49	3.68
	유행에 앞서 패션(드)	3.41	3.46	3.59	3.28	3.55	2.93	3.49	3.39
	자연스러운, 편안한 패션(내)	4.12	4.16	4.10	4.21	4.31	3.69	4.11	4.17
	폼격/우아한 패션(클)	5.12	5.37	5.39	5.27	4.93	4.90	5.21	5.29
색	파스텔 톤/부드러운 칼라(로)	4.63	4.42	4.38	4.68	4.77	4.45	4.40	4.62
	강렬하고 화려한 색상(드)	3.14	3.31	3.39	3.01	3.27	3.29	3.19	3.33
	편안한 자연색상(내)	4.94	4.95	4.91	4.97	4.99	4.73	4.83	5.01
	중간 톤의 고상한 색상(클)	5.04	5.21	5.21	5.15	5.10	4.73	5.06	5.19

※ (클), (로), (드), (내)은 각각의 Fashion Look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순서대로 클래식, 로맨틱, 드라마틱, 내추럴 이미지를 의미한다.

※ 수도권은 서울/경기 응답자에,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된다.

연령대 별로, 거주지 별로 각 외모 이미지의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각 외모 이미지별 분포 양상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한 분석을 학력별로도 실시한 결과 학력별로 외모이미지의 선호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가 없는 이유는 정치인에 관해 느끼는 사회적 통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된다.

<표 20>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외모 이미지의 평균

외모이미지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
인구학적 분류					
성별	남자	17.84	16.84	16.18	17.72
	여자	17.77	16.22	16.41	17.82
연령	20대	17.67	16.68	16.46	17.86
	30대	17.91	16.24	16.34	17.79
	40대	17.80	16.53	16.29	17.47
	50대	18.30	16.63	15.15	17.24
지역	서울/경기	17.98	16.53	16.29	17.47
	지방	17.64	16.44	16.37	18.05

위와 유사한 분석을 4가지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에 대해서도 실시하였다. 앞서 요인분석을 토대로 4가지로 분류하였고, 4가지 외모 이미지 중에서 클래식, 내추럴, 드라마틱, 클래식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합을 통해 각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에 해당하는 변량을 산출하였다. <표 21>을 참고하면,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상관없이 대부분 각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에 대한 선호는 비슷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래식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20점대로 높았고, 다음은 내추럴, 로맨틱, 드라마틱 순서로 제시되었다.

<표 21>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패션 룩 유형의 평균

패션 룩유형		로맨틱	드라마틱	내추럴	클래식
인구학적 분류					
성별	남자	16.91	12.92	18.32	20.84
	여자	15.87	12.94	18.05	21.41
연령	20대	16.03	13.16	18.16	21.37
	30대	16.31	12.50	18.35	21.18

	40대	16.67	12.92	18.29	20.66
	50대	16.68	13.37	16.81	20.28
지역	서울/경기	16.07	12.98	18.24	21.02
	지방	16.40	12.91	17.98	21.21

패션 룩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이미지별로 사람들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행한 결과는 <표 22>과 같다. Paired T-test결과 모든 이미지의 조합에서 응답자들의 선호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예상한대로 클래식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드라마틱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패션 룩 유형의 선호도 평균 차 검정

평균		T-value	P-value
로맨틱	드라마틱	15.48	0.00
16.24	12.95		
로맨틱	내추럴	-9.86	0.00
16.24	18.11		
로맨틱	클래식	-21.64	0.00
16.24	21.06		
드라마틱	내추럴	-23.22	0.00
12.95	18.11		
드라마틱	클래식	-31.53	0.00
12.95	21.06		
내추럴	클래식	-16.58	0.00
18.11	21.06		

이는 기존 여성 정치인이나 매스컴에 비치는 대통령 영부인들의 패션 스타일 과도 연결되는 결과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의 영향으로 여성 정치인은 남성 위주의 정치사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존재 였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캐네디 대통령의 부인 이였던 재키 여사가 미국에서 재키 스타일을 유행 시켰던 것과 같은 과감함과 혁신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 이다. 그래서 격식 있는 자리에선 클래식한 스타일을 즐겨 입었고, 평상시에는 국민에게 혹시라도 위화감을 조성할까봐 내추럴한 스타일을 즐겼던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러한 모습이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관련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여성 정치인이 고유한 이미지를 갖느냐는 질문은 여성정치인의 고유 외모이미지 소유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 정치인 개인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는 정치적 위상을 높이느냐는 질문은 외모에 의한 정치적 위상상승의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성 정치인이 외모에 신경을 써야하는가라는 질문은 여성정치인의 고유한 이미지에 대한 앞으로의 수용성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으로 파악할 수 있다. 7점 만점의 척도를 고려 해 볼 때 여성 정치인이 고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외모 이미지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표 23>을 참고 하면 성별이나 연령별 거주지 별로 외모수용태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고로 가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 인식의 부분에서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의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0.076으로 95% 유의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표 23>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의 평균

외모수용태도		고유 외모이미지 소유	외모에 의한 정치적 위상상승	외모이미지 수용성	외모수용태도 (전체)
인구학적 분류					
성별	남자	5.01	4.44	4.51	13.94
	여자	4.94	4.52	4.61	14.01
연령	20대	4.85	4.47	4.60	13.92
	30대	4.99	4.32	4.50	13.78
	40대	5.14	4.76	4.71	14.38
	50대	5.17	4.32	4.40	13.85
지역	서울/경기	4.93	4.46	4.55	13.97
	지방	5.01	4.47	4.59	13.95

고유 외모이미지 소유 : 여성정치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갖는다

외모에 의한 정치적 위상상승 : 여성정치인 개인의 고유한 외모이미지는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

외모이미지 수용성 : 여성정치인은 외모이미지에 신경 써야한다

외모수용태도(전체) : 위 세 가지 질문 응답의 합을 의미

<표 24>는 지도력, 청렴성, 결단성의 정치적 자질 선호도와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갖는 정치인을 선호하는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대한 반응을 정리한 결과이다. 앞서 열거한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는 정치인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높은 결과가 제시되었고, 여성 정치인이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는 개인적이고 감정적 반응의 결과일 뿐, 이러한 감정적 반응의 영향이 이성적 선택인 투표의 결과로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표 24>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와 고유한 외모이미지 선호도의 평균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		지도력	청렴성	결단성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
인구학적 분류					
성별	남자	5.96	5.86	5.85	5.16
	여자	5.91	5.86	5.92	5.19
연령	20대	5.87	5.74	5.90	5.18
	30대	6.04	6.18	5.92	5.11
	40대	5.98	5.72	5.79	5.35
	50대	5.97	5.53	5.55	5.12
지역	서울/경기	5.79	5.80	5.80	5.02
	지방	6.08	5.87	5.93	5.33

앞서의 설문은 여성 정치인에 전체에 대한 외모 이미지에 관계된 부분이었다면 <표 25>에서는 실제 구체적인 국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여 설문의 구체성과 실제 어떤 여성 정치인이 어떤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 외모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문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유효 설문지 674부에서 상당한 평가를 얻고 있는 네 명의 여성 정치인을 선별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외모이미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 여성 정치인은 박근혜, 강금실, 추미애, 박영선으로 파악이 되었고, 각각의 지지도는 54.3%, 48.4%, 23.3%, 17.2%로 제시되었다. 각 응답자별로 다수의 여성 정치인을 제시하도록 하여 지지도의 편중성을 막고, 단순한 정치적 색채나 지역적 이유에서 나온 여성 정치인이 아닌 외모 이미지가 좋다는 기준에서 나온 다양한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표 25> 여성정치인 선호도

여성정치인	선호 빈도	선호율 I (선호빈도/1338)	선호율 II (선호빈도/674)
강금실	326	24.4	48.4
강혜숙	26	1.9	3.9
경혜원	30	2.2	4.5
김명자	18	1.3	2.7
김영주	17	1.3	2.5
나경원	35	2.6	5.2
박근혜	366	27.4	54.3
박영선	116	8.7	17.2
박찬숙	70	5.2	10.4
손봉숙	24	1.8	3.6
이영순	37	2.8	5.5
전여옥	56	4.2	8.3
추미애	157	11.7	23.3
최순영	31	2.3	4.6
홍미영	8	0.6	1.2
기타	21	1.6	3.1
총합	1338	100.0	198.5

선호율 I : 두 명씩을 허용하여 답변된 여성정치인 중에서 해당 여성 정치인이 차지하는 비율

선호율 II :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해당 여성정치인을 응답한 사람의 비율

<표 26> 투표결정에 대한 기초 통계량

투표결정		외모기준 투표결정		정치적 자질기준 투표결정	
		평균	평균차 검정통계량	평균	평균차 검정통계량
성별	남자	3.86	t-value -0.16(0.88)	5.91	t-value -2.88(0.00)
	여자	3.88		6.21	
연령	20대	3.66	F-value 6.68(0.00)	6.08	F-value 1.30(0.27)
	30대	3.89		6.13	
	40대	4.45		6.04	
	50대	4.43		5.74	
지역	서울/경기	3.77	t-value -2.00(0.05)	6.03	t-value -0.65(0.52)
	지방	4.05		6.09	

외모기준 투표결정 : 나는 외모이미지가 좋은 여성정치인에게 투표한다.

정치적 자질기준 투표결정 : 나는 정치적 자질이 좋은 여성정치인에게 투표한다.

※ ()안의 숫자는 해당 평균 차 검정통계량에 대한 유의확률임

앞서 제시한 내용에서 여성정치인의 외모이미지에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정의된 몇 가지 변수명이 있어 이에 대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어정리>

1. 외모이미지 수용태도 : 설문문항 5-1, 5-2, 5-3의 결과 값을 더하여 여성정치인의 외모이미지에 대한 응답자의 종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변수명
 - 1) 고유 외모이미지 소유 : 설문문항 5-1에 해당하는 “여성정치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이미지를 갖는다” 질문의 응답결과를 의미하는 변수명
 - 2) 외모에 의한 정치적 위상상승 : 설문문항 5-2에 해당하는 “여성정치인 개인의 고유 외모이미지는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 질문의 응답결과를 의미하는 변수명
 - 3) 외모이미지 수용성 : 설문문항 5-3에 해당하는 "여성정치인은 외모이미지에 신경을 써야한다" 질문의 응답결과를 의미하는 변수명
2.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 : 설문문항 7-1에 해당하는 “나는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이미지를 갖는 여성정치인이 좋다” 질문의 응답결과를 의미하는 변수명
3. 정치적 자질 선호도 : 지도력, 청렴성, 결단력에 대한 선호도를 분류 하였다.
4. 유권자의 투표 결정 : 외모 기준과 정치적 자질 기준으로 두 개로 분류 하였다.
 - 1) 외모기준 투표결정 : 설문문항 9-1에 해당하는 "나는 외모이미지가 좋은 여성정치인에게 투표 한다" 질문의 응답결과를 의미하는 변수명
 - 2) 정치적 자질기준 투표결정 : 설문문항 9-2에 해당하는 "나는 정치적 자질이 좋은 여성정치인에게 투표 한다" 질문의 응답결과를 의미하는 변수명

5 . 결과 및 논의

1) 연구 문제의 분석결과

연구문제 1.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스타일이 외모 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1-1. 메이크업 스타일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1-2. 헤어 스타일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1-3. 패션 스타일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1-4. 색 스타일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설명변수인 외모 이미지에 대한 값을 얻기 위해서 설문 문항에서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에 대한 7점 척도의 응답을 합산하여 네 가지 종류의 이미지 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반응변수인 외모 이미지 수용태도를 얻기 위해서 “여성정치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가진다.”, “여성 정치인 개인의 고유 외모이미지는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다.”, “여성정치인은 외모이미지에 신경을 써야한다.”라는 세 가지 설문문항의 입력치를 더하여 얻은 값이다. <표 27>를 보면 외모에 대한 네 가지 구성요소 모두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적인 모습에 대한 선호정도가 높을수록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화된 베타 값을 비교해 보면, 네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도 색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주는 외적 이미지는 색

을 통해서 크게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색의 측면을 가장 주목한다. 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다포함하여 인지하는 측면이라고 판단된다.

<표 27> 외모이미지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외모이미지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유의확률
메이크업	0.153	0.146	0.000
헤어	0.102	0.096	0.024
패션	0.143	0.137	0.002
색	0.241	0.240	0.000
F-값	유의확률	R-square	수정 R-square
50.423	0.000	0.240	0.235

연구문제 2.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이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2-1. 패션 룩 유형이 여성정치인의 고유 이미지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가?
- 2-2. 패션 룩 유형은 여성정치인의 외모에 의한 정치적 위상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가?
- 2-3. 패션 룩 유형은 여성 정치인 외모이미지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2-4. 패션 룩 유형은 여성 정치인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앞서 요인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만든 인간의 잠재적인 네 가지 패션 룩유형, 로맨틱, 드라마틱, 내추럴, 클래식에 대한 선호가 외모 이미지 소유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표 28>을 참고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패션

룩 유형이라도 그 유형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 내추럴은 미약하나 여성 정치인이 고유한 외모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8> 패션 룩 유형이 외모 이미지 소유에 미치는 영향

패션 룩 유형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유의확률
로맨틱	0.080	0.237	0.000
드라마틱	0.032	0.096	0.009
내추럴	0.026	0.070	0.089
클래식	0.096	0.279	0.000
F-값	유의확률	R- square	수정 R- square
45.084	0.000	0.291	0.214

다음으로 로맨틱, 드라마틱, 내추럴, 클래식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외모 이미지 수용태도 즉 여성정치인의 고유한 외모이미지는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대체적으로 4가지 패션 룩(Fashion Look)유형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표 29>에서 특히 드라마틱과 클래식 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질수록 외모이미지를 통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에 의한 정치적 위상상승에 미치는 영향

패션 룩 유형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유의확률
로맨틱	0.026	0.071	0.078
드라마틱	0.058	0.161	0.000
내추럴	0.032	0.080	0.061
클래식	0.095	0.263	0.000
F-값	유의확률	R- square	수정 R- square
27.832	0.000	0.148	0.142

<표 30>을 통해서 로맨틱, 드라마틱, 내추럴, 클래식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외모 이미지의 수용성 즉 여성정치인이 외모이미지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내추럴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사람은 여성정치인이 굳이 외모이미지에는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이미지와 관련 있는 내추럴한 이미지의 특징과도 결부되는 특징으로 생각된다.

<표 30> 패션 룩 유형이 외모 이미지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패션 룩 유형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유의확률
로맨틱	0.039	0.101	0.013
드라마틱	0.070	0.181	0.000
내추럴	0.016	0.037	0.389
클래식	0.090	0.230	0.000
F-값	유의확률	R- square	수정 R- square
24.195	0.000	0.131	0.126

앞서 요인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만든 인간의 잠재적인 네 가지 패션 룩(Fashion Look) 유형인 로맨틱, 드라마틱, 내추럴, 클래식에 대한 선호가 외모 수용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표 31>을 참고하면 유의수준 5%에서 볼 때 로맨틱, 드라마틱, 클래식한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고 모두 회귀계수가 양수인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이미지들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화된 베타계수를 참고하면 가장 눈에 띄는 패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이미지 보다는 클래식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패션 룩 유형의 문제를 단순한 시각적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와 연관을 맺으면서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을 지닌 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클래식한 이미지를 가장 수용성이 높은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으로 삼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표 31>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 룩 유형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유의확률
로맨틱	0.144	0.171	0.000
내추럴	0.160	0.188	0.000
드라마틱	0.072	0.078	0.052
클래식	0.276	0.320	0.000
F-값	유의확률	R- square	수정 R- square
53.563	0.000	0.251	0.246

이와 같은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이 외모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별로 따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32>, <표 33>과 같다. 일단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남성은 13.9이고 여성은 14.0으로서 세 가지 문항에서 모두 만점을 주었을 때 21점인 것을 감안하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 남성

패션 룩 유형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유의확률
로맨틱	0.190	0.216	0.000
내추럴	-0.009	-0.010	0.874
드라마틱	0.157	0.178	0.002
클래식	0.345	0.355	0.000
F-값	유의확률	R- square	수정 R- square
22.742	0.000	0.265	0.254

<표 33>을 볼 때 여성의 경우는 네 가지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이 고루 외모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표 32>에서 남성의 경우 특이한 점은 내추럴한 패션 룩 유형은 외모이미지수용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남성의 시각에서 네 가지 패션 룩 유형 중 가장 자연스럽게 편안한 내추럴한 이미지에 대해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여성 정치인의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여성정치인이 외모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점은 아직도 남성들은 여성 정치인을 볼 때 다듬어지지 않거나 자연스러운 모습보다는 여성스럽고 격식을 맞게 클래식한 멋진 외모 이미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3>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 여성

패션 룩 유형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유의확률
로맨틱	0.095	0.112	0.030
내추럴	0.133	0.139	0.010
드라마틱	0.181	0.214	0.000
클래식	0.248	0.306	0.000
F-값	유의확률	R- square	수정 R- square
33.039	0.000	0.261	0.253

<표 34>를 보면 20대에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 외모이미지 중에서 외모 이미지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클래식, 드라마틱, 로맨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치인이 고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가지 패션 룩(Fashion Look)유형 모두 유의하였다. 예를 들어 대답한 디자인의 착용과 강렬한 색상을 통해 드러나는 드라마틱한 패션 룩 유형에 대해 수용태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여성정치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통해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여성 정치인도 외모이미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클래식한 이미지가 외모수용성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유의수준 1%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품격 있고 우아한 이미지의 클래식한 스타일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여성정치인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34>에서는 연령대별 특성이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젊고 역동적이면서 발랄한 20대에서는 대답한 느낌을 주는 드라마틱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외모 이미지를 통해서 정치인의 인지도나 위상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표 34>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 20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	로맨틱	드라마틱	내추럴	클래식	R-square
고유 외모이미지 소유	0.219**	0.198**	0.116*	0.280**	0.284
외모에 의한 정치적 위상 상승	0.100	0.227**	0.116	0.209**	0.183
외모이미지 수용성	0.060	0.335**	0.023	0.220**	0.197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전체)	0.156**	0.321**	0.102	0.293**	0.325

※ 각 셀 내부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며 * 표시는 P<0.05,** 표시는 P<0.01임.

30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20대와는 달라 드라마틱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여성 정치인에 대한 고유한 외모이미지에 대한 소유나 외모이미지 수용성 혹은 외모수용태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대신에 30대 계층에서는 클래식한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당히 높아서 외모에 대한 높은 수용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로맨틱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성 정치인이 외모 이미지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 35>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 30대

외모수용태도	로맨틱	드라마틱	내추럴	클래식	R-square
고유 외모이미지 소유	0.232**	0.025	-0.106	0.343**	0.172
외모에 의한 정치적 위상 상승	-0.121	0.163*	-0.092	0.412**	0.148
외모이미지 수용성	0.255**	-0.014	-0.002	0.208*	0.128
외모수용태도(전체)	0.161*	0.075	-0.082	0.408**	0.199

※ 각 셀 내부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며 * 표시는 P<0.05,** 표시는 P<0.01임.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같은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관련한 다양한 반응변수에 대해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이미지가 주는 영향이외에 타 연령대와 다른 점은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로맨틱한 이미지가 주는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표 36>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 40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	로맨틱	드라마틱	내추럴	클래식	R-square
고유 외모이미지 소유	0.295**	0.010	0.121	0.212*	0.242
외모에 의한 정치적 위상 상승	0.233**	0.094	0.150	0.214*	0.232
외모이미지 수용성	0.097	0.093	0.052	0.251**	0.122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전체)	0.270**	0.084	0.151	0.263**	0.300

※ 각 셀 내부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며 * 표시는 P<0.05,** 표시는 P<0.01임.

종합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클래식한 스타일이 여성 정치인의 외모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인들이 클래식한 스타일을 추구해왔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클래식 스타일이 정치인에게 기본적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 때문에 모든 여성 정치인이 클래식한 스타일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각 연령별 분석결과 세부적으로는 다른 특징이 보였기 때문이다. 20대에서는 드라마틱, 40대에서는 로맨틱 이미지가 외모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미지로 선택된 데에는 각 연령대별 성향이 잘 드러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의 선호 경향은 여성 정치인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선호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

선호 여부가 아니라 여성 정치인과 결부된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할 수 있다. 즉 20대에서는 드라마틱한 스타일을 선호한 사람이 40대 이상에서는 로맨틱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여성 정치인에게 외모 이미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가장 선거에서 가장 부동층이 많다고 생각되는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위와 비슷한 분석을 한 결과 20대의 의견과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나 좀 더 대담한 드라마틱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여성 정치인에게 정형화된 외모 이미지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연구문제 3.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3-1.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는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여성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는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표 37>은 지도력, 청렴성, 결단성으로 표현되는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갖는 여성 정치인이 좋다는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도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선호도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강조되는 점은 일반적인 여성 정치인의 외모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가 후보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다는 점이다.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갖는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더불어

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치인의 자질 중에 어떤 항목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37>을 참고하면 지도력 있고, 결단성 있는 정치인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갖는 여성 정치인을 좋아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렴성이라는 정치인 개인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사람보다는 지도력과 결단성이라는 사회적인 조직 속에서 정치인의 행동의 결과를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고유한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분석결과 얻을 수 있었다.

<표 37>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와 외모수용태도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유의확률
지도력	0.159	0.145	0.001
청렴성	-0.031	-0.031	0.525
결단성	0.121	0.113	0.018
외모이미지 수용태도	0.156	0.390	0.000
F-값	유의확률	R-square	수정 R-square
56.501	0.000	0.260	0.255

그렇지만 청렴성 부분이 유의하지 않는 것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차원적으로는 청렴성은 지도력과 결단성에 비해서는 개인적 자질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논문의 초점인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라는 부분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문제 3을 분석한 결과 지도력과 결단성을 정치인의 자질선호도로

요구하는 유권자에게 여성 정치인이 자신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권자에게 여성 정치인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는 정치인 자체에 대한 단순한 호감의 차원을 넘어서, 조직 속에서 지도력 있고 결단성 있는 모습까지도 유권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문제 4. 연령과 패션 룩 유형은 특정여성 정치인을 지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4-1. 유권자 연령과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은 여성 정치인 박근혜를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 4-2. 유권자 연령과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은 여성 정치인 강금실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 4-3. 유권자 연령과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은 여성 정치인 추미애를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 4-4. 유권자 연령과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은 여성 정치인 박영선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이번 설문에서 특이한 점은 여성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폭넓은 지지라고 할 수 있다. 40대 50대에서 말할 것도 없지만, 20대 30대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정치권에서 제 1 야당의 당 대표라는 위치를 고려하고서라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 연령대 별로는 선호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 연령대와 선호여부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38> 박근혜의 외모 이미지에 대한 연령별 선호경향

% = col. %

선호 여부	연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선호	160 46.9%	91 49.7%	78 67.2%	48 77.4%	377 53.7%
비선호	181 53.1%	92 50.3%	38 32.8%	14 22.6%	325 46.3%
계	341	183	116	62	702(100%)
카이제곱	$\chi^2=30.050$		유의확률	0.000	

<표 39>를 볼 때 박근혜의 지지여부를 반응변수로 하고 네 가지 패션 룩 유형과 연령구분을 20대,30대와 40대,50대로 한 변수를 추가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클래식, 로맨틱 스타일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박근혜의 외모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내추럴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박근혜의 외모 이미지를 선호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평소 무난한 내추럴한 스타일 보다는 클래식하면서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는 박근혜의 외모이미지와도 관계를 갖는 결과로 생각된다.

<표 39> 박근혜의 외모이미지 선호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패션 룩유형	회귀계수	표준편차	유의확률
로맨틱	0.044	0.020	0.029
드라마틱	-0.025	0.019	0.185
내추럴	-0.077	0.024	0.001
클래식	0.047	0.020	0.020
연령	0.528	0.195	0.007

<표 40>을 참고하면 강 금실에 있어서 박근혜와 차별되는 점은 강 금실의 외모이미지를 선호하는 연령대가 박근혜와는 달리 20대, 30대에서 더욱 선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박근혜와 유사하게 연령대별로는 선호정도의 차이 때문에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연령대와 선호도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표 40> 강금실의 외모 이미지에 대한 연령별 선호경향

%=col. %

선호 여부	연 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선호	183 53.7%	92 50.3%	45 38.8%	20 32.3%	340 48.4%
비선호	158 46.3%	91 49.7%	71 61.2%	42 67.7%	362 51.6%
계	341	183	116	62	702(100%)
카이제곱	$\chi^2=14.797$		유의확률	0.002	

로지스틱 분석결과 <표 41>에서는 로맨틱, 드라마틱, 내추럴의 패션 룩 (Fashion Look)유형을 선호하는 사람보다는 클래식 스타일이 여성 정치인의 외모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 금실의 외모이미지를 선호한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는 과거 강 금실의 패션 스타일과는 약간 다른 결과이다. 평소에 강 금실의 특징은 화사한 색의 치마정장, 바지정장, 어깨에 두른 솔을 통해 자유롭고 대담한 드라마틱한 스타일을 추구해왔지만 분석결과는 클래식을 선호하는 유권자들과 나이가 어린 유권자들이 강 금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강금실의 외모이미지 선호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패션 룩유형	회귀계수	표준편차	유의확률
로맨틱	-0.019	0.020	0.342
드라마틱	-0.005	0.019	0.786
내추럴	0.017	0.023	0.450
클래식	0.056	0.020	0.000
연령	-0.900	0.203	0.000

세 번째 추미애의 경우 연령대별로 외모 이미지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42>참고). 하지만 20대의 젊은 세대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약간 높은 선호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지스틱 분석결과(<표 43> 참고) 다른 패션 룩(Fashion Look)유형 보다는 내추럴한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추미애의 외모이미지를 좋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선 강 금실과 달리 평소 추미애의 패션이나 헤어, 색 스타일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표 42> 추미애의 외모 이미지에 대한 연령별 선호경향

선호 여부	연 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선호	82 24.0%	42 23.0%	24 20.7%	8 12.9%	156 22.2%
비선호	259 76.0%	141 77.0%	92 79.3%	54 87.1%	546 77.8%
계	341	183	116	62	702
카이제곱	$\chi^2=3.986$		유의확률	0.263	

<표 43>추미애의 외모이미지 선호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패션 룩유형	회귀계수	표준편차	유의확률
로맨틱	-0.004	0.024	0.881
드라마틱	-0.032	0.022	0.147
내추럴	0.068	0.028	0.015
클래식	0.028	0.025	0.259

마지막으로 박 영선은 정치 경력은 짧지만 오랜 아나운서 경력으로 브라운관에 자주 보이면서 외모이미지에 대해서는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어 외모가 좋은 여성정치인에서 네 번째 여성정치인이 되었다. 다섯 번째 여성정치인도 오랜 방송 경험이 있는 박찬숙인 것으로 보아 방송에서의 활동이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선호도(<표 44>참조)를 보면 박 영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30대에게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아직 정치인으로서 많은 시간이 지나질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패션 룩 유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박영선의 외모 이미지를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은 찾을 수는 없었다.

<표 44> 박영선의 외모 이미지에 대한 연령별 선호경향

선호 여부	연 령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선호	49	45	13	9	116
	14.4%	24.6%	11.2%	14.5%	16.5%
비선호	292	138	103	53	586
	85.6%	75.4%	88.8%	85.5%	83.5%
계	341	183	116	62	702
카이제곱	$\chi^2=12.338$		유의확률	0.006	

<표 45> 박영선의 외모이미지 선호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패션 특유형	회귀계수	표준편차	유의확률
로맨틱	0.041	0.025	0.109
드라마틱	-0.028	0.024	0.238
내추럴	0.038	0.030	0.199
클래식	0.013	0.027	0.619

여성 정치인에 대한 외모 이미지가 단순히 외모만 많이 알려져 있다고 좋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 정치인이 어느 정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형성할 때, 특정한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경향성 있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도 평소 자신이 추구해오던 패션 스타일과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연구문제 5.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 정치인의 자질이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5-1.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 정치적 자질은 외모기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5-2.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는 정치적 자질은 정치적 자질기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좋을수록 외모이미지가 좋은 여성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6>참고). 분석결과 기본적으로 외모 이미지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외모 이미지에 따른 투표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모이미지 수용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여성 정치인에게 외모

이미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외모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46>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외모기준 투표결정에 대한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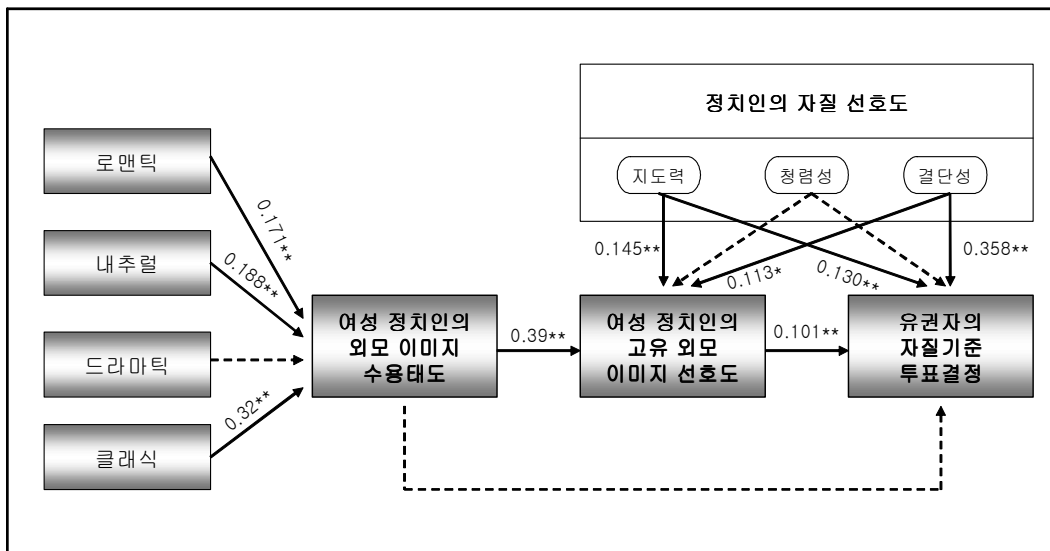
외모이미지 수용태도		고유 외모이미지 소유	외모에 의한 정 치적 위상 상승	외모이미지 수용성
외모기준 투표결정	상관계수	0.242	0.238	0.324
	유의확률	0.000	0.000	0.000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갖는 여성 정치인이 좋다는 설문에 해당하는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와 앞서 제시한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정치적 자질이 좋은 여성 정치인에게 투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예상한 대로 정치적 자질 중 지도력과 결단성을 중요한 정치적 자질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치적 자질에 따라 투표한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이미지를 갖는 여성정치인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치적 자질과 함께 여성정치인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이미지를 갖는 것도 후보자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해진 요즘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47>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 정치인의 자질선호도가 유권자의 자질기준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유의확률
외모이미지 수용태도	0.022	0.013	0.107
정치인의 자질	지도력	0.041	0.130
	청렴성	0.041	0.030
	결단성	0.043	0.358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	0.033	0.101	0.002
F-값	유의확률	R-square	수정 R-square
62.405	0.000	0.330	0.325

<그림 87> 다음 그림과 같이 정치인의 자질 기준 모델 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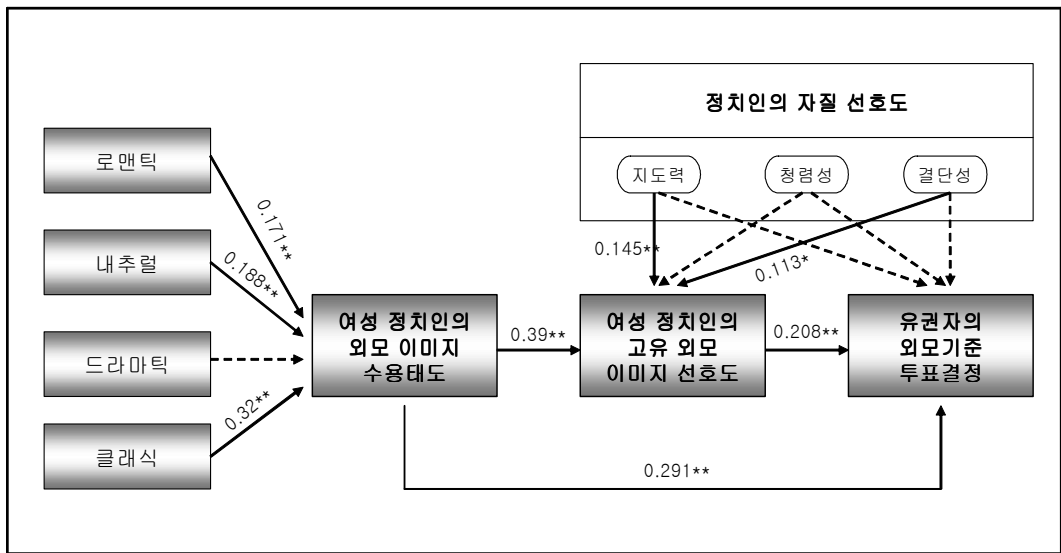


<그림 87> 정치인의 자질 기준 모델 검증

<표 48>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가 유권자의 외모기준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유의확률
외모이미지 수용태도	0.139	0.291	0.000
정치인의 자질	지도력	0.034	0.026
	청렴성	-0.106	-0.088
	결단성	-0.081	-0.063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	0.246	0.208	0.000
F-값	유의확률	R- square	수정 R- square
24.778	0.000	0.166	0.159

<그림 88> 다음 그림과 같이 외모기준 모델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88> 외모기준 모델 검증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갖는 여성 정치인이 좋다는 설문에 해당하는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와 앞서 제시한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외모 이미지가 좋

은 여성 정치인에게 투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48>에서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와 외모이미지수용태도 모두 외모기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치인의 자질 중 청렴성에 해당하는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청렴성을 정치인의 자질 선호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외모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정계수가 높은 값인 것으로 보아 여성 정치인이 외모에 신경을 써야하고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갖는 여성 정치인을 좋아한다는 감정적 선호만으로는 이성적 판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투표로 바로 이어지는 데에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즉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당의 이미지, 후보 자신의 정치인의 자질서 등 여러 가지 판단요소들이 투표 시 고려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각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에서 투표의 행태가 외모 이미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하였다.

<표 49>에서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모 이미지가 좋은 여성정치인에게 투표한다는 설문 응답에서 정치인의 자질이 좋은 여성 정치인에게 투표한다는 설문의 응답을 뺀 값으로 정의되었다. 그래서 차이가 작은 집단일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서 외모이미지가 좋은 여성정치인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여성 정치인에게서 외모 이미지를 고려해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남성에게서 내추럴한 이미지를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와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결과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직까지는 여성 정치인을 정치인의 한사람이라기보다는 여성으로 보는 성향이 남아 있고 그러한 성향이 설문결과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49> 연령별 투표결정

투표결정 연령 구분	외모기준 투표결정	정치적 자질기준 투표결정	차이	t-값	유의 확률
20대	3.66	6.08	-2.40	-20.00	0.00
30대	3.89	6.13	-2.25	-13.32	0.00
40대	4.45	6.04	-1.47	-5.91	0.00
50대이상	4.43	5.74	-1.44	-4.19	0.00
총합	3.91	6.06	-2.13	-23.79	0.00

유사한 분석을 학력별로도 실행했다. 학력과 연령은 어느 정도 결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학력과 결부된 개개의 특징이 투표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비교적 저학력의 최종학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앞서 나이 많은 사람의 분석 결과와 비슷한 투표결정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반대로 최종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비해 여성 정치인에게 투표할 때 외모 이미지 보다는 정치적 자질을 즉 내면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50> 학력별 투표결정

투표결정 연령 구분	외모기준 투표결정	정치적 자질기준 투표결정	차이	t-값	유의 확률
고졸미만	4.76	5.55	-0.69	-1.82	0.08
고졸	4.31	5.94	-1.61	-5.93	0.00
대학재학	3.63	5.97	-2.31	-15.50	0.00
대졸	3.82	6.23	-2.39	-17.77	0.00
대학원이상	3.72	6.24	-2.51	-8.52	0.00
총합	3.87	6.06	-2.16	-23.79	0.00

2) 분석 결과의 시사점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 즉,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 등이 외모이미지 수용 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도 색이 가장 크고, 메이크업, 패션, 헤어 스타일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 룩(Fashion Look)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클래식 내추럴 로맨틱 드라마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직업별, 직업별, 성별, 지역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지만, 개성이 강한 20대는 클래식을 제외하고는 드라마틱이 높게 나온 점과 기성세대인 40대는 두 번째로 로맨틱을 선호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클래식을 바탕으로 한 가운데 20대는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고 40대는 로맨틱하게 연출할 때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외모 이미지 선호도에 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응답자들은 여성 정치인이 고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여성 정치인은 박근혜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금실, 추미애, 박영선 순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성의 경우 모든 패션 룩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남성은 내추럴한 이미지에 선호는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20대여성의 경우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클래식, 드라마틱, 내추럴, 로맨틱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여성 정치인 자질에 대한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를 분석하면 지도력

있고, 결단성 있는 정치인을 선호하는 유권자 일수록, 그리고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높은 유권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갖는 여성 정치인을 좋아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덟째,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외모 기준 투표결정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외모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에게 투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홉째,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와 외모이미지 수용태도는 외모기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지도력, 결단력,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는 정치적 기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서 본연구의 시사점은 과거와는 달리 유권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정치인의 외모이미지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으며, 특히 남성에게 비해 다채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외모이미지를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에 대해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다양한 이미지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정치적 성향이나 본래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패션 룩 유형을 찾아야 하며, 그리고 자신이 어필할 대상과도 전략에 따라 어울릴 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룩 유형을 통한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의 수용태도와 고유한 외모이미지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가 외모이미지가 좋은 여성 정치인에게 투표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델을 통해 설계했고,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 기법을 통해 모델의 검증은 시도하였다.

연구 방법 및 가설 설정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 즉, 메이크업, 헤어, 패션, 색에 대한 다양한 외적인 모습에 대한 선호정도가 높을수록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도 색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고, 메이크업, 패션, 헤어스타일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주는 외모적 이미지는 색을 통해서 크게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오늘날 미디어 정치에서 색을 먼저 인지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위 결과는 신뢰가 가는데 예를 들어 노란색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이 연상되고, 파란색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연상되는 현상을 볼 때 색이 정치인의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외모 이미지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4가지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내추럴 로맨틱 드라마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정치인이 공인으로서 정돈되고 보수적이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클래식과 자연스럽게 튀지 않는 내추럴이 여성정치인의 스타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로맨틱이나 드라마틱 스타일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반드시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성이 강한 20대 유권자는 클래식을 제외하고서는 드라마틱한 이미지에 높은 외모이미지수용태도를 보여주고 반면에 40대 유권자들은 로맨틱한 이미지에 대한 외모 이미지 수용태도가 높다는 점은 4가지 외모 이미지 스타일에서 클래식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스타일을 믹스 매치할 경우 연령대에 맞추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응답자들은 여성 정치인이 고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타 연령대에 비해 40대 응답자들이 여성정치인 개인의 고유한 외모이미지는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여성정치인이 외모이미지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외모이미지에 대해서는 높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유권자들이 가장 외모이미지 선호도가 높은 여성 정치인은 박근혜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 금실, 추 미애, 박 영선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의원은 클래식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 정치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녀가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로맨틱한 이미지를 가미한 고유 외모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분석결과에서는 여성 정치인 박근혜에 대해서 클래식, 내추럴, 로맨틱 이미지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여성 정치인 박근혜의 외모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대와 30대 사람들이 비교적 강 금실 전 장관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클래식적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강 금실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성 정치인 추 미애는 20대에 4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연고 있으며 내추럴한 패션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여성 정치인 박 영선은 30대에서 지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특별한 스타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뚜렷한 특징은 없었다.

다섯째, 외모 이미지와 정치인의 자질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의 자질을 더 많이 고려하여 투표를 결정 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하지만 유의할 사항으로는 다른 연령대보다도 40대와 50대 유권자에게서 여성 정치인의 외모이미지가 좋은 여성정치인에게 투표결정 하겠다는 의견을 더 많이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여섯째, 남녀에 따라서 패션 룩 유형이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 4가지 패션 룩 유형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남성의 시각에서 4가지 패션 스타일중 가장 자연스럽게 편안한 내추럴한 이미지는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에게 여성정치인의 정돈 되지 않은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이미지 보다는 로맨틱, 드라마틱한 여성스러운 매력이 외모 이미지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외모 이미지 수용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연령대에 따라서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패션 룩 유형은 달라진다는 점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클래식을 선호하지만, 먼저 2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외모 이미지 수용태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젊은 20대여성이 대담하고 혁신적인 오늘의 유행 경향에 편승해서 여성 정치인의 이미지를 파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 여성은 압도적으로 클래식한 이미지가 외모이미지의 소유, 정치적 위상과의 연계성, 수용성, 수용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0대 여성은 클래식 이미지와 함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로맨틱한 이미지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여성의 외모 이미지가 좋다는 것은 곧 아름다운, 낭만적인, 부드러움, 여성적인, 감성적인 느낌을 선호

하는 것과도 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정치인의 자질이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도력 있고, 결단성 있는 정치인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외모이미지 수용태도가 높은 유권자 일수록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갖는 여성 정치인을 좋아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렴성이라는 개인의 이미지와 관련한 자질보다는 지도력과 결단성이라는 사회적인 조직 속에서 정치인적인 행동의 결과를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유권자일수록 여성정치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외모이미지 수용태도와 투표결정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은 외모이미지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외모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결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정치인은 외모이미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외모가 좋은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여성 정치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이미지를 형성할 때, 특정한 패션 룩 유형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경향성 있는 답변을 얻어 낼 수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도 정치적 경력과 분리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열번째, 유권자의 연령이나 최종학력에 따라 고유한 외모 이미지에 따른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당의 이미지, 후보 자신의 정치인의 자질 등 여러 가지 판단 요소들이 외모보다는 더욱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연령별 비교에서 나이가 많고, 저학력 집단일수록 여성 정치인 외모이미지를 고려해서 투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정치인의 자질을 더 눈 여겨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여성 정치인의 좋은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

히 좋은 이미지란 만들어 지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 경비가 든다. 21세기 리더의 조건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성적인 매력이라면 이는 외모이미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으로서 각자의 매력을 살리려면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 생활정치가 부각되면서 여성 정치인이 더 늘어갈 추세고 외모적 이미지 전략은 꾸준히 발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7대 국회에 들어서 여성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면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이미지를 통해 유권자나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설문결과에서도 여성 정치인에게 기존의 클래식한 이미지 이외에 새로운 이미지를 찾기를 원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참고해 보면 기존의 정치적 입지를 가진 여성 정치인들은 대체로 그들의 과거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다양한 연령대에서 폭 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박근혜의 경우 클래식, 로맨틱, 내추럴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 박근혜의 외모이미지는 좋게 평가되었다. 실제 박근혜의 과거 스타일을 보면 클래식한 치마 정장을 주로하고, 쉼이 있는 우아한 머리 모양을 통해 로맨틱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의 이러한 스타일은 대중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나아가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정치인이 만드는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은 그 정치인에 대한 좋은 느낌과 높은 지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

고 추미에 역시도 설문분석 결과 내추럴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에서 외모 이미지에 대한 좋은 평가를 얻어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는 여성 정치인의 경우 정치적 능력 못지않게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러한 고유한 이미지는 유권자가 여성 정치인에게 갖는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여성 정치인들이 TV 등의 대중매체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전략적 이미지를 찾아내고 그 이미지가 뇌리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션, 헤어, 메이크업, 색 등의 요소를 가미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모이미지로 줄 수 있는 호감과 정서적 친밀감과 정치인으로서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로 연출하고 유권자에게 다가서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일단 각 여성 정치인의 스타일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하지 못해 각 여성 정치인의 이미지에 필요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찾지는 못했다. 다음으로 설문 방식에서 각 지역별 임의추출의 특성 때문에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63%가 대구/경북 지역에 치우는 분포를 가지고 있어, 50대 이상인 사람들의 의견이 편중되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 정치인에 관한 일반론적인 문제에서 개별 정치인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여, 특정 여성 정치인이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며, 그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 방법과 시간과 장소 목적에 따른 코디네이션에 연구하여, 외모 이미지에 대해서 조언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패션 룩 유형도 4가지에서 8가지 16가지 등으로 더욱더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하고, 외모이미지 또한 액세서리, 음성 말투 걸음걸이 등을 포함하여 내면 외면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경화 (1999). 메이크업 총론. 서울 : APC.
- 강영하 (2000). 메이크업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진한도서.
- 권혁남 (1988). '한국인의 정치인지 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 권혁남 (1988).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인식 구
성체 연구. 한국과 국제 정치 4(2). pp.35-69
- 김경순, 김미애, 박상희, 오인영 (2000). *Make up II*, 청구문화사.
- 김복숙 (1999).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
대학교 대학원.
- 김봉인 (1994). 화장 행위의 주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염제 (1992). 인물 이미지 메이킹. 서울: 한국광고연구원.
- 김염제 (1994). 텔레비전 토론 전략, 인물이미지 메이킹: 정치인의 이미지 전
략의 모든 것, 서울: 한국광고연구원.
- 김영수 (2000). 정치인 이미지 연구,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윤경 (2002). 메이크업 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색채화장
이 얼굴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의복 스타일, 색,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김정순, 박옥련 (2002). 여대생들의 헤어스타일행동에 따른 이미지별 선호도.

- 한국인체학술회지, 3(3), pp 137-140.
- 김학성 (1994). 색채. 서울: 도서출판 조형사.
- 김현주 (1999).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미지형성과 커뮤니케이션. <한국방송학
보> 제 12호. pp.45- 73.
- 김희숙, (2000).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 노규형, 김학량 (1997). 선거와 여론조사. 서울: 나남.
- 도주연, 권영숙 (1992). hairstyle 변화에 관한 얼굴 이미지 요인과 분석:
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16(3)
pp.243-250.
- (주)동아출판사 (1994). 동아세계대백과사전. 30권, pp.403-405.
- 문남원 & 김옥진 (1997). 얼굴 유형과 의복 네크라인과의 조화 연구, 복식학
회지, 35, pp.305-323.
- 민봉기 (1995). 연대별로 본 헤어변천, 한국생활문화100년 : 1894-1994, 태평
양 50년사 부록, 장원, pp.77-118.
- 박병준 편 (1991). 정치마케팅. 서울: 나남출판사. 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
문집. pp.95-97.
- 박길순 (2002). 현대 패션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혼성모발의 분석. 한국의류
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38-40.
- 박윤희 (2003). 메이크업 색채와 이미지 상황적 연출과 표현에 관한연구. 석사
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서윤경, 김주덕 (2003). 여대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이로가 헤어 컬
러와의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19(2), pp.192-194.
- 심재희 (1988). 성공하는 성격과 이미지, 서울: 무한.
- 안병만 (1988). 대통령선거표의 성향에 나타난 투표형태. 신동아 1월호.
- 오지민 (2002). 여성헤어스타일과 헤어디자인 감성 및 예측 모형 개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오희선, 박화순 (1996). 의상 디자인. 서울: 경춘사.

윤수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 카톨릭대학교.

이동희 & 윤병국 공저 (2003).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 서울: 형설출판사.

이시원 (2004). 공적 사적 자기의식에 따른 바디 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이연희 (2001). 화장의 색채.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pp.12-13.

이윤주 (1992). 복식에 있어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마케팅연구원(1996), 마케팅신용어사전, 사단법인 한국마케팅 연구원.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01). 의상심리, 교문사,

이준용 (1998). 후보이미지의 정치적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2). pp.243-282.

이진화 (2000). Rod 배열에 따른 와인딩 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학술회. (1), p.137.

이한수 (2002). 새로운 웨이브 기법 연구. 한국인체 학술회. 3(1), pp.249 - 251.

이현출 (1994). 대중매체와 선거. 서울: 신유.

정상대 (2000). "한국 대통령 선거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제13,14,15대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전략 비교 분석,"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정옥희 (2003). 이미지별 헤어스타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정윤무 (1995). 미디어 정치론. 서울: 정우당.

조경섭 (1998). TV정치광고의 광고효과연구: 이미지광고를 중심으로, 광고학

연구 9(2), pp.89-116.

- 조규화 (1999). 서울시내 여중고생의 화장품 소비실태 조사연구, 태평양장학
문화 재단, (10), 여성생활문화편.
- 최귀자 (2001). 일부 여성의 모발염색실태와 관련요인 분석. 경산대학교 보건
대학원.
- 최미경 (2003). 정치인의 이미지가 미디어에 나타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
대학교.
- 차배근 (1986).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이론. 서울: 나남출판사.
- 천지연, 노선옥, 이귀영, 이영애 (2001). 이미지 메이크업: *Faces In Make
Up*. 청구문화사.
- 최수정, 박혜원, 조오순 (2003). 모발 염색에 관한 실태조사. 패션비즈니스 학
회. 20(2).pp 21-30.
- 한궁창 (2002). 대선정치PR에 관한 한 미 양국의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石田香里 (1995). 現象學的化粧論 「おしやれの 哲學」.株式會社: 理想社.
pp.16-17.

Ajzen I., Madden.T.,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 Intens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2. pp.5-18.

Arterton, F. C. (1984). *Media politics: The news strategies of
presidential campaignd*. Lexington, MA: D. C. Heath.

- Berlo, D. K., Lemert, J. B., & Mertz, R. J., (1969-1970), Dimensions for acceptability of message sources. *Public Opinion Quarterly*, 33, pp.563-576.
- Boorstin, Daniel J. (1961). *The Image*, N.Y: Athbaum.
- Boulding, K. (1956). *The imag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Carol Jackson 6 Your Clothing Personality: What Type Are You?, Color Me Beautiful. pp.75-88.
- Cash, T., & Pruzinsky, T., (1990).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 The Guilford press.
- Clare Revelli. (1989). Personal Style. *Style & You*, pp.10-18.
- Cool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Cox, C. L., & Glick, W. H., (1986). Resume evaluations and cometics use: when more is not brtter. *Sex Role*, 14, pp.51-58.
- Daniel, J. Boorstin. (1961). *The image* ,New York : Athbaum, p.197.
- Davis, D. K. (1981). Issues information and connotation in candidate imagery: Evidence form a Laboratory experimen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 pp.461-479.
- Davis, F., R. Bagozzi., & Warshaw., (1989).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35(8).
- Englis. B. G. (1994). The role of affect in political advertising: Voter emotional responses to the nonverbal behavior of politicians. In E. M. Clark., T. C. Brock., & D, W. Stewart.,(Eds), *Attention, attitude, and affect in response to*

- advertising(pp.223-24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ishbein, M., I. Ajzen.,(1999).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p.175.
- Funk, C, L. (1999). Bringing the candidate into models of candidate evalu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61(3), pp.700-720.
- Garramone, G. M., (1983). Issue Versus image orientation and effects of political advertising. *Communication Research*, 10(1), pp. 59 - 76.
- Graham, J. A., & Journal, A. J., (1981). The effect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Psychology*, 54, pp.917-924.
- Graham, J. A, & Jouhar, A. J., (1981). The effect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3, pp.199-210.
- Grunig, J. R., (1993). Image and substance: Form symbolic to behavioral relationships. *Public Relations Review*, 19(2), pp.121-139.
- Hacker,K,Giles, M, Christensen, E., & Rohwer, S., (1995, February). Voter discourse and candidate images: An analysis of candidate image discourse formulation regarding George Bush, Bill Clinton, and Ross Perot. Paper presented at the Western States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Portland, OR, In K,L.Hacker(Ed.).*Candidate images in presidential elections*, Westport: Praeger, p.78.

- Hacker, K & Zakai, W., (1994). Reconsidering the issue-image dichotomy: A statistical test of key candidate image construct assumptions. Paper presented at the mass Communication Division of the Western States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San Jose, CA.
- n K. L. Hecker (Ed), *Candidate images in presidential elections* (p. 6, 78), Westport: Praeger.
- Hasen, C. H., & Hasen, R. D.,(1998). Finding in the Crowd : An Anger Superiority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pp.917-927.
- Hellweg, S, A. (1995). Campaigns and candidate images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In K, L. Hacker(Ed.), *Candidate images in presidential elections*), Westort: Praeger. pp.1-17.
- Hillestad, R. (1980). The underlying stucture of appearance. *Dress* 5: pp.117-125.
- Kaiser, S. B. (1998).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plc appearances in context-. New York. pp.145-157.
- Kaisers, R. C. (1983). An analysis of body-image distortions in a nonpatient population, *Intr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 pp.34-41.
- Kurt lang., & Gladly Lang., (1968). *Politics and Television* (Chicago: Quadrangle Books), pp.80-81.
- Lippmann, W. (1960). *Public opinion*, New York: Macmillan.
- McCombs, M., Llamas J. P., Escobar E. L., & Rey, F., (1997). Candidate

- image in spanish election: second-level agenda-setting effects. *Journal of Marketing Communication*, 74(4), pp.703-731.
- McCroskey, J. C., (1966). Scales for the measurement of ethos. *Speech Monographs*, 33, pp.65-72.
- McCroskey, J. C., Jensen, T., & Todd, C., (1972, April). The generalizability of source credibility scales for public figures. Paper presented at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Chicago. In K. L. Hacker (Ed.), *Candidate images in presidential elections* (p.8), Westport Praeger.
- McNair, R. E. (1994).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communication*. London & NY: Routledge.
- Miller, A. H., Wattenberg, M. P., & Malanchuk, O., (198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candidate assessments. In K. R. Sanders, L. L. Kaid, & D. Nimmo(Eds.), *Political communication yearbook*. 1984,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pp.183-210.
- Molly, J. T. (1975). *Dress for success*. New York: Warner.
- Molly, J. T. (1977). *The women's dress for success*. New York: Warner.
- Natchez, P. B. (1970). Images of voting: The social psychologists. *Public Policy*, 18, pp.553-587.
- Nimmo, D. (1974). Images and voters' decision-making process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 pp.771-781.
- Nimmo, D. & Savage, R. L., (1976). *Candidate and their images: Concepts, methods, and findings*. CA: Goodyear.
- Patterson, T. (1980). *The mass medi*

- a election: How Americans choose their President*. New York: Praeger.
- Powell, L. (1977). Voting intention and the complexity of political images: A pilot study. *Psychological Reports*, 40, pp.243-273.
- Rarick, D. L., Duncan, M. B., Lee, D. G., & Porter, L. W., (1977). The carter persona: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hetorical visions of campaign' 76 *Quarterly Journal of Speech*, 63, pp.257-273.
- Rosenberg, S. W., & McCafferty, P., (1987). The image and the vote: Manipulation voters' prefer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51, pp.31-47.
- Shyles, L. (1988). Profiling candidate image in televised political spot advertisements for 1984: Roles and realities of presidential pollsters at the height of the Reagan ear. *Political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5, pp.15-31.
- Siger, R. S. (1964). Effect of partisanship on the perception of political candidate. *Public Opinion Quarterly*, 28, pp.83-99.
- Sigel, R. S. (1964). Effect of partisanship on the perception of political candidate. *Public Opinion Quarterly*, 28, pp.249-291.
- Sigel, S, L. (1988). Effect of partisanship on the perception of political candidates. *Public Opinion Quarterly*, 28,pp.483-496.
- Solomon, M. R. (1985).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Sydncy kraus(ed.), (1962). *The Great Dedates: Background, Perspective, Effec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인터넷 주소

[www. firstviewkorea.co.kr](http://www.firstviewkorea.co.kr)

[www. 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ABSTRACT

A Study on Appearance Image of Female Politicians according to Fashion Look Style

Kwon, Tae Soon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image is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nowadays. Especially, appearance image is a crucial factor to recognize and accept a person. Recently, female politicians gain popularity and social issue. It may be a interesting topic to evaluate how the citizen recognize and accept the female politician. It is started to find out a solution fo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how does a citizen recognizes the appearance of a female politician?; how does the appearance image of a female politician has an effect on the voting of a citizen?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we have focused on a citizen's acceptance for a female politician's appearance and designed a research model, entitled as (PAAM: Politician Appearance Acceptance Model) by

analyzing the process that a citizen (a voter) recognizes and understands a female politician.

According to this model, this study deals with not only the citizen's acceptance of a female politician classified by sex, age, education, and region, but also the appearance influence on the voting. In order to perform this, we investigated a voter's reaction on the appearance of a female politician according to fashion look style and used a statistics approach such as cross analysis and the regression method as a methodology.

We composed the questionnaire for male and female from 20's to 50's ages and selected the voters by considering age, education, resident place, and occupation. Sampling was 706 peopl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appearance image factor, fashion style factor, politician's qualification, voter's acceptance, and voter's behavior.

Appearance image covers the make-up, hair, fashion, and color. Fashion style is classified as four types such as classic, natural, romantic, and dramatic style. Also we consider the leadership, uprightness, and determination for the politician quantification.

The research contribu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ppearance image factors such as make-up, hair, fashion, and color have the strong correlation with the voter's acceptance of a female politician. Among these, color factor is proven as the greatest fact and make-up, fashion, hair style by the order of importance. This results suggest that politician should be focused on the color to make their own

appearance image.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 of fashion look style is given in the following regular sequence: classic, natural, romantic, and dramatic, and is show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voter's acceptance of a female politician. Classic look have a greatest impact on the acceptance of female politician's appearance image. This means that citizen is relatively conservative in considering the female politician who should be elegant than active or radical.

Secondly, the citizen's attitude to the appearance image acceptance according to fashion looks was analyzed based on the sex, occupation and region. These four fashion look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women's attitude, but natural fashion look does not have effect on the men's attitude. To the detail based on age, classic fashion look was supported from all ages, but dramatic fashion look from the twenties and romantic from the forties.

Third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ference in female politician's qualification as their own unique features and the citizen's attitude to the appearance image acceptance, leadership and determination showed the positive influence on the citizen's preference in the female politician's unique features. Although uprightness did not affect on the citizen's preference, this is probably because most of the female politician may be regarded uprighteous compared with the male politician. Low impact power of leadership and determination showed that other unknown qualification factors may be more important to influence on the

citizen's preference. In addition, the more the voters feel friendly to the attitude to the appearance image acceptance, the more they think female politician should have their own unique features.

Fourthly, it is investigated that a Mrs. Keun-Hei Park gets the highest voter's score among female politicians of the republic of Korea. Keum Sil Kang, Mi Ae Chu and Young Sun Park gets a high score by the order of high score. It means that the image of Mrs. Keun-Hei Park represents a female politician with the characteristic of classical appearance. Keun-Hei Park had higher point from the forties and fifties in terms of the preference in the appearance image and the citizens with preference in the classic, natural and romantic fashion look.. Keum-Sil Kang gained high score from the twenties and thirties and from the voters who favor the classic fashion look.

The voters who are in the twenties and favor natural fashion look showed preference to Mi-Ae Chu. Young Sun Park was supported from the thirties who showed no differences in preferences among fashion looks.

Fifth, from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citizen's attitude to appearance image acceptance and the preference to the female politician's qualification on the voter's behavior, the higher the citizen accept the attitude to the appearance image acceptance, the more appearance image impacts on the voter's behavior. the citizen who think female politician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ppearance image showed strong correlation with the their behavior to vote. The citizen in the forties or fifties and in the lower educational class showed the preference in female politician who have better appearance image. Highly educated citizen evaluate the female politician in terms of qualification than appearance image. From the analysis about the favored

qualifications as female politician, leadership and determination gained higher score suggest that female politician should behave actively and dynamically instead of smoothly and gently. This results is interesting thinking of the favored fashion look of female politician.

This study can show follow suggestions from above results.

Citizen's behavior to vote after decision from the perception of female politician is based on the combined image of appearance image and political qualification. The attitude to appearance image acceptance and political qualific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eference of the their own unique feature and the citizen's behavior to vote, which suggest that appearance image is important to improve the political power of female politician. Thus, female politician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ppearance image. This approach should not be based on the private preference , but based on the scientific and rational process. Definitely, this study was designed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last comment and can be a cornerstone in female politician's image strategy.

설문지

이 자료는 여성 정치인 외모이미지 전략 분석 관한 설문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학술 논문을 위하여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 전략 분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 입니다.

질문의 응답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으니, 귀하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외모이미지 전략 연구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 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답변은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이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장 가능성 있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9

성신여자대학교 권 태순 드림

*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0표해 주십시오.

- 1.성별: ① 남() ② 여()
- 2.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이상()
- 3.최종학력: ① 고졸미만() ② 고졸() ③ 대학 재학()
④ 대졸() ⑤대학원이상()
- 4.직업: ① 공무원() ② 회사원() ③ 자영업()
④ 학생() ⑤ 무직() ⑥ 전문직()
⑦ 주부() ⑧ 교직원() ⑨ 기타()
- 5.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부산/경남()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라() ⑥ 대전/충청()
⑦ 강원() ⑧제주() ⑨ 기타()

1. 다음은 여성 정치인의 메이크업(화장)에 관한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스타일이 여성 정치인에게 어울리는지 생각해보고, 한 개의 번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응답요령 : 제시된 ‘밝고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하는 스타일’ 이 여성 정치인에게 매우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7번에 체크(✓)하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1	밝고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하는 스타일	①---②---③---④---⑤---⑥---⑦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1	밝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메이크업	①---②---③---④---⑤---⑥---⑦		
1-2	여러 가지 색을 배합하여 눈에 띄게 하는 메이크업	①---②---③---④---⑤---⑥---⑦		
1-3	한 두 가지 색으로 한 듯 안한 듯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①---②---③---④---⑤---⑥---⑦		
1-4	중간색으로 고상하고 차분하게 정돈된 메이크업	①---②---③---④---⑤---⑥---⑦		

2. 다음은 여성 정치인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스타일이 여성 정치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위와 같은 요령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2-1	소프트하고 흐르는 듯한 웨이브 긴 머리	①---②---③---④---⑤---⑥---⑦		
2-2	대담한 컷과 강한 웨이브로 혁신적인 헤어	①---②---③---④---⑤---⑥---⑦		
2-3	스트레이트 생머리나 자연스러운 헤어	①---②---③---④---⑤---⑥---⑦		
2-4	잘 정돈된 단발머리와 깔끔하게 올린 헤어	①---②---③---④---⑤---⑥---⑦		

3. 다음은 여성 정치인의 패션스타일에 관한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스타일이 여성 정치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앞 페이지와 같은 요령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3-1	여성적이고 낭만적인 은은한 물방울이나 꽃무늬 패션스타일	①---②---③---④---⑤---⑥---⑦		
3-2	유행에 앞서고 자신의 특유한 추상적이고 대담한 첨단소재, 무늬, 디자인 스타일	①---②---③---④---⑤---⑥---⑦		
3-3	무난한 디자인, 체크나 동식물 모양의 편안한 연출 스타일	①---②---③---④---⑤---⑥---⑦		
3-4	폼격 있고 우아한 단색의 줄무늬 패션스타일	①---②---③---④---⑤---⑥---⑦		

4. 다음은 여성 정치인의 색(color) 스타일에 대한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스타일이 여성 정치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위와 같은 요령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4-1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색상	①---②---③---④---⑤---⑥---⑦		
4-2	강렬하고 화려한 색상	①---②---③---④---⑤---⑥---⑦		
4-3	편안한 자연 색상	①---②---③---④---⑤---⑥---⑦		
4-4	중간 톤의 고상한 색상	①---②---③---④---⑤---⑥---⑦		

5. 다음은 여성 정치인의 외모수용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앞 페이지와 같은 요령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여성정치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여성정치인 개인의 고유 외모이미지는 정치적 위상 이 올라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여성정치인은 외모이미지에 신경 써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음은 정치인의 자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앞 페이지와 같은 요령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도력이 있는 정치인을 선호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청렴성이 있는 정치인을 선호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결단성이 있는 정치인을 선호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음은 여성정치인에 대한 고유 외모이미지 선호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위와 같은 요령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신만의 고유한 외모 이미지를 갖는 여성정치인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음의 여성 정치인 중 외모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2명이상)

- 강금실() 강혜숙(우리당)() 강혜원(우리당)()
 김명자 (우리당)()
 김영주 (우리당)() 나경원(한나라당)() 박근혜(한나라당)()
 박영선(우리당)()
 박찬숙(한나라당)() 손봉숙(민주당)() 이영순(노동당)()
 전여옥(한나라당)() 추미애 () 이영순(노동당)()
 최순영(노동당)() 홍미영(우리당)()
 기타()

9. 다음은 여성정치인의 선거 투표 결정에 미치는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앞 페이지와 같은 요령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모이미지가 좋은 여성 정치인 에게 투표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정치적 자질이 좋은 여성정치인 에게 투표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